

리아호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4, 16,
20, 22

순결을 지키려는
청년 성인들, 42쪽
우리를 도운 네 개의
경전 구절, 54쪽
초등회 진금, 58쪽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고 가르쳤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에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려면 4, 16, 20, 22쪽을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미 대륙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제프리 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미 대륙의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의
어린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제3니파이
17:21~23)

물

해 리아호나에는 물문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각 인물을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나 작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돌



예수 그리스도



야렛의 형제



거룻배

약속된 땅으로 인도되는 야렛인들
이더서 1~3장, 6장



리아호나, 2012년 10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행복한 가족이 되는 한 가지 열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8 방문 교육 메시지: 우리의 성약을 존중하며

특집 기사

- 22 청소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멜리사 메릴
개종으로 이끄는 경험을 하게 할 다섯 가지 방법
- 28 엘마서: 이 시대를 위한 교훈
폴 비 파이퍼 장로
니파이인들로부터 배운 세 가지 교훈은 이 시대의 시련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

- 34 적진에서 생존하는 법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어떻게 성신이 인도하며 보호하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서 찾아본다.

교회 본부 기사


-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복장과 외모
- 10 10월 연차 대회 노트:
연차 대회를 위해
달력 비워두기
첵럴 버
-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일학교식 대답
에머 애덤스
- 12 우리의 믿음: 검약하는 삶:
미래를 대비하다

- 14 작고 단순한 일
- 1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순결과 정결 가르치기
매튜 오 리차드슨
- 20 복음 고전: 가정에서 의로움을 가르치다
델버트 엘 스테플리 장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좋은 것은 계속 오기 마련이다
케이틀린 에이 러시

표지
사진 삽화: 코디 벨



42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킴
 성적 순결을 존중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순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 독신 여덟 명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노아가 리아호나를 사용했나요?

- 46** 질의응답: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48** 현명해지고, 친구가 되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좋은 친구라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 51** 댄스 파티 복장
 크리스탈 마틴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내 축복문 내용이 떠올랐다.
- 5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복장과 외모: "성령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메리 앤 쿡
- 54** 말씀으로 강화되며
 네 명의 청소년들이 경전이 떠올라 도움이 되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 57** 포스터:
 좁고 험악한 길이 바른 길입니다

51



- 58** 초등학교에서 진급할 때
 청남 혹은 청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들
- 60** 아미가에게
 마리벨
 초등학교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친구에게 쓴 편지
- 61**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환영하며
 머리사 위드슨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는 노아, 딜런, 패트릭, 벤
- 62** 음악: 오소서 주여
- 63** 특별한 증인: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64**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신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 66** 두 배로 온 축복
 리차드 엠 롬니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10살 된 쌍둥이 소피와 엘로디를 만나보세요.
- 68** 저도 침례 받으면 안 되나요?
 힐러리 왓킨스 레몬
 6살 된 파올로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 신이 났다.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물론경 경전 인물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스,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티나, 쿠엔틴 엘 록,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커튼

고문: 세인 엠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플른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케번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앨라시 젠더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넷, 라이언 카,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인디 라에 프리드만, 히카리 로프터스, 리아 맥클리나켄,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라스, 시 킴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린, 클린 톱클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이, 브래드 데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케이 넬슨, 가일 터데 라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우 책임자: 예반 말손

통 관: 제551호, 제49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형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체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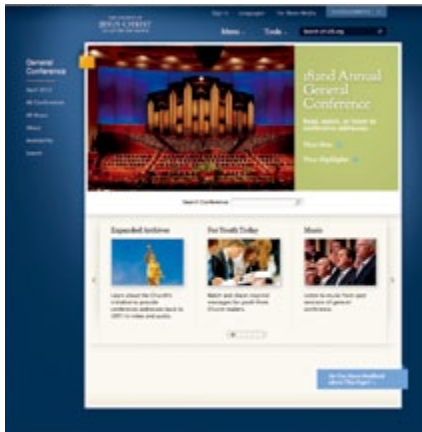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12 Vol. 36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4쪽)에서 용서에 대해 읽으면, conference.lds.org에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인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2007년 4월)도 읽고 싶어질 것이다.

청소년

52쪽에서 메리 앤 쿡 자매가 성전에서 느끼는 경건이 어떻게 우리의 복장에 대한 지침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youth.lds.org에서 "복장과 외모"에 관한 것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http://Liahona.Lds.org)에 나오는 다른 표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

"두 배로 온 축복"(66쪽)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쌍둥이 자매 엘로디와 소피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Liahona.Lds.org에서는 이들의 재미있는 사진을 더 볼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16, 20
- 가족, 4, 16, 20, 22, 38, 66
- 개종, 39
- 경전 공부, 11, 54
- 교회사, 14
- 기도, 38
- 모범, 40
- 물문경, 28, 81
- 복장, 9, 51, 52
- 봉사, 20, 39
- 부모의 본분, 16, 20, 22
- 선지자, 28
- 성약, 8
- 성전, 8, 52
- 순결, 16, 42
- 순종, 40, 57
- 신권, 46, 64
- 신앙, 39, 80
- 안식일, 40
- 역경, 28
- 연차 대회, 10
- 예수 그리스도, 62, 63
- 용서, 4
- 일, 12

- 자립, 12
- 준비, 12
- 지도력, 20
- 지혜, 48
- 청남, 58, 61
- 청녀, 58, 60
- 친구, 48
- 친절, 28
- 침례, 68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행복한 가족이 되는 한 가지 열쇠

위 대한 러시아 작가인 레오 톨스토이의 소설인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¹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고 톨스토이처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가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가족은 바로 서로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잊으며, 장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가정에서는 걸핏하면 잘못을 찾아내고, 원한을 품고, 과오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첫마디는 “맞아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이거나 “맞아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모를 거예요.”입니다.

양쪽 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화내는 것, 그리고 상처받는 것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도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하하면서 결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자신의 의도는 지극히 순수하고 결백하다고 끌어올림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양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개

13세기 웨일스를 배경으로 한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자는 그의 개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급히 들어가보니, 경악스럽게도, 아들은 보이지 않고 요람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왕자는 칼을 뽑아 개를 죽입니다. 잠시 후,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는 죽은 늑대 시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개는 아기를 잡아먹으려 한 늑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극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을 알려고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괴로움에 빠진 채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원한은 수개월, 수년, 혹은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분열된 가족

자신이 일러 준 길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을 두었으며 아버지 생각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자간에 골이 깊어졌고, 아들은 어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서로 말도 하지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각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 원리가 가족과 반원들이 생활에서 경험한 것과 어떻게 유사한지 자문해 본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65쪽)
가족들에게 용서와 관련해 긍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목격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고 권한다. 용서가 주는 축복을 강조하면서 이 경험들을 토론한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면서 마무리한다.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렇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렇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용서할 수 없었기에 이 가족 관계는 틀어졌으며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받은 쓰라린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을 줄 기회를 스스로 뺏겼습니다. 부자간의 골은 너무나 깊고 넓어서 두 사람은 자기 감정의 섬에 갇혀 버린 영적인 죄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랑이 많으시고 현명하신 하늘 아버지는 이 자만심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뛰어넘을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대하고 무한한 속죄는 용서와 화해의 숭고한 행위입니다. 제 이해력으로는 속죄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것이 실재하며, 그것이 궁극적인 힘임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희생을 통해 승영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주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교만을 극복할 때, 우리는 가족과 자신의 삶에 화해와 용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기꺼이 더 베풀도록, 설사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먼저 용서하도록, 묵은 원한을 뒤로한

채 더는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의 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찬송가 “풍성한 주 은혜로”²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기주의와 자만심은 접어두고 우리와 마찰을 겪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용서라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거룩한 원리를 작은 곳에 적용하는 데부터 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³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는 원리들을 이어 주며 사람들을 이어 주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열쇠이자 닫힌 문을 열어 주며 정직한 길의 시작이자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최고의 희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좀 더 가족과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행복한 가족이 그러하듯 용서가 훌륭한 방법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주

1. Leo Tolstoy, *Anna Karenina*, trans. Constance Garnett(2008), 2.
2. “풍성한 주 은혜로”, 찬송가, 138장.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기욤임제 추가.

기도와 평화

로렌 더블유

어느 날 저녁, 저는 엄마와 논쟁하다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분이 나뉘고 “영적”이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덜 논쟁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방을 나가신 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밤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 이건 아니야! 저는 눈을 뜨고 포갠 팔을 풀었습니다. 기도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필요한 것은 ……” 그 말 역시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많은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 감사를 표한 뒤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마음 속에 큰 평안을 느끼자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따뜻한 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의 사과도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우리가 가족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조셉과 애나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까요?



조셉과 여동생 애나는 함께 놀고 있습니다. 애나가 조셉의 장난감을 핵 낚아챘습니다. 조셉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셉이 애나에게 화를 냅니다. 애나가 울음을 터트립니다. 어머니가 여동생과 싸운다고 꾸중하십니다. 조셉은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조셉이 애나를 용서하고 갖고 놀 다른 장난감을 찾습니다. 둘은 함께 즐겁게 놀니다. 어머니는 조셉이 여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족 내에서 평화를 지킨 것을 기뻐하십니다. 조셉은 용서하는 쪽을 선택했기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조셉과 애나는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조셉은 돕지 않았습니다. 애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나가 어머니께 불평합니다. 애나는 혼자만 일하는 것에 투덜댑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논쟁 때문에 가족 모두 언짢아합니다.

애나는 조셉을 용서하고 함께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어머니는 애나의 도움에 고마워하십니다. 애나는 용서하는 쪽을 선택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쪽을 선택할 때 가족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우리의 성약을 존중하며

방문 교육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강화할 때 우리의 제자됨을 나타내며 우리의 성약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약은 거룩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약속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자신이 성약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분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¹

우리는 방문 교사로서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들이 자신이 맺은 신성한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도와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축복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고,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고, 시온의 가정들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²라고 말씀했다.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된다.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로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구에서

니파이전서 14:14; 모사이야서 5:5~7; 18:8~13; 교리와 성약 42:78; 84:106

주

1. 러셀 엠 벨슨, “성약”,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9쪽.
2.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9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33쪽.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1833년에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전이 “모든 성도를 위한 감사드리는 장소”라고 계시하셨다. 성전은 “각자의 모든 부름과 직분에서 성역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한 가르침의 장소”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성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땅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체의 일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97:13~14)

일리노이 주 나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1840년대 초에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서로 도왔다. 후기 성도들이 나부 성전에서 받은 더 높은 신권 의식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다.]”(교리와 성약 84:20) “성도들이 성약을 지켰을 때 이 능력이 더욱 커져서,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었다.”³

오늘날, 전 세계의 충실한 남성과 여성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 성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에서 힘을 찾는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내가 맺은 성약은 어떻게 나를 강화하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이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복장과 외모

우 리 몸의 신성한 속성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후기 성도는 몸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나타내도록 옷을 입음으로써 돋보인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6~8쪽 참조) 이번 호 52쪽에서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인 메리 앤 쿡 자매는 이 표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보호하고 안팎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전을 계획 할 때, 핵심은 성전이 주님의 집이므로 성전은 곧 그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건물로서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서 참여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에 성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딸입니다! 대표하고,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은 원리는 여러분이 몸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더더욱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안은 자녀들에게 복장과 외모에 대한 올바른 원리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숙한 옷차림으로 모범을 보일 때 자녀에게 적절한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청소년을 위한 가르침 제안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복장과 외모 편을 함께 읽는다. 그렇게 할 때 이 표준에 대한 교리, 축복, 경고에 대해 토론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 질문에 대답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 가정의 밤 시간에 복장과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족들에게 ‘만약 교회에 주님과 함께 간다면 어떤 복장을 하고 갈 것인가? 그분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겠는가? 정숙한 복장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직장, 사교 모임과 같은 때에 어떻게 입어야 적절한지 토론할 수 있다.

초등회 아이를 위한 가르침 제안

- 우리의 복장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타낸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의 밤 시간에 모두 선교사 복장 혹은 일요일 복장을 갖추어 볼 수 있다.
-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숙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7쪽에 나오는 지침을 살펴보고 이 지침에 맞는 옷을 입힌다. ■

복장과 외모에 관한 경전 구절

창세기 1:27;
고린도전서 6:19;
앨마서 1:27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고리와 성약 1:38)

연차 대회를 위해 달력 비워두기

첼럴 버

우리의 시간이 이러저러한 일로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들을 때 더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년 전, 제 여섯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는 연차 대회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렷한 정신과 좋은 몸 상태로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연차 대회는 현대의 선지자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차 대회 전 며칠동안, 혹은 연차 대회 주말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달력에 연차 대회 주간을 비워 두었고 각자 그 주간에는 다른 활동을 계획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물론 각 가족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부수적인 활동”이란 학교 활동에 참가하는 것, 이웃집 어린이가 놀러 오는 것, 집을 떠나 친구들과 뭔가를 하는 것, 친구나 친척과 파티 혹은 저녁을 먹는 것, 연차 대회 기간 중 혹은 그 사이에 정원 손질이나 기타 일을 하는 것, 학교 숙제를 마지막까지 미루는 것, 직장에서 과외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연차 대회 전 주가 되었을 때, 이런 활동에 불참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 가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옳은 선택을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차 대회의 일부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연차 대회 전 주에 우리가 연차 대회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 대회 전과 그 기간 중에 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연차 대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러저러한 일로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들을 때 더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 때마다 우리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깃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 중 몇 명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집에서 했던 대로 연차 대회 전 며칠, 그리고 연차 대회 기간 중에는 일정을 비워 두라고 권유합니다. 또한 전 가족이 연차 대회 모임 하나 정도는 같이 보려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정을 비워 둬으로써 연차 대회 경험을 꼭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



연차 대회에 우선 순위를 두다

“연차 대회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의 깊게 듣고 주어진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폴 브이 존슨, 칠십인 정원회, “연차 대회의 축복”,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2쪽.

주일학교식 대답

에머 애덤스

나는 내 시련에 대한 응답으로 뭔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주님께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도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접근법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와드의 복음 교리반 교사인 나는 심오한 질문을 해서 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새롭고 감탄할 만하며 통찰력이 탁월한 대답을 하게 할 심산이었다. 다시 말해, 나는 매주 와드 회원들의 구태의연한 “주일학교식 대답”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과 준비를 하면서 신약 전서를 훑어보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하*다라는 말에 관심이 쏠렸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강조체 추가)라고 나온다.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며 구주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기]”(요한복음 17:21, 23)를 바라시며 기도하셨다.

내가 대부분 찾았던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며,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거하며*, 그 결과 어떻게 좀 더 인내심을 키울 수 있을지였다.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 생기를 불어넣고 성결하게 해 주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그 인내심 말이다.

오묘하게도 *거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 하고 매일 처하는 어려운 시련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을 때, 나는 결국 내가 피하려 했던 주일학교식 대답에 고스란히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내 시련들에 대한 응답이 경전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가족과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성전과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단순한 것이 그냥 건디는 것과 훌륭히 견뎌 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주일학교식 대답이 사실 제일 좋은 정답이다. ■



우리의 신앙을 키우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데살로니가전서 3:10) 데 필요한 네 가지 근본적인 요소는 봉사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구체적 방법으로 신앙을 살피우는 일을 그치게 된다면, 곤약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갈수록 굳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베소서 6:17; 또한 예이름서 1:12 참조)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과 결부”(히브리서 4:2)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88쪽.



교회가 승인한 자료를 사용함

“교사와 지도자들은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그에 대해 간증하기 위해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 승인된 교과 과정 자료를 사용한다. 각 반 또는 정원회를 위한 승인된 교과 과정 자료들은 현행 교과 과정 유의 사항에 나온다. 필요한 경우, 교사와 지도자들은 교회 잡지, 특히 *Ensign*과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사용하여 교과 과정 자료를 보충한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5.5.4.

검약하는 삶: 미래를 대비하다

후 기 성도는 준비하고 자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취업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준비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준비하며 자연재해나 기타 시련에 대비해 현세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접근 방법을 검약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검약하는 삶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속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합니다.”(니파이후서 2:26) 주님은 우리가 책임감 있으며 자립하기를 바라십니다.(교리와 성약 78:14) 그분은 우리가 검약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책임감 있고 관대하며 성숙하고 친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립할수록 우리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배고픈데 어떻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지식을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신앙이 부족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약하는 삶의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준비.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교리와 성약 1:12)
- 근면. “너는 게으르지 말라”(교리와 성약 42:42)
-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교회 회원들이 본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먼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치 않을 경우,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과 지부 회장은 “주의 창고” 물품으로 회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2:18~19 참조)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목적은 회원들이 스스로 돕고 일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창세기 41장; 교리와 성약 38편 30절을 참조한다.



“우리 모두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려면, 우리는 앞날을 예비하는 삶의 원리들, 즉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쁘게 생활함, 가진 것에 만족함, 과도한 빚을 피함, 부지런히 저축하여 굶은 날의 비상사태를 예방함 등의 원리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앨마서 37:6)

위대한 삶을 기리며

뉴얼 케이 휘트니(1795~1850)

아래 왼쪽 삽입:
뉴얼 케이 휘트니의
조각된 초상화.
아래 오른쪽 삽입:
선지자 학교와
교회 모임이
열렸던 오하이오,
커틀랜드에 위치한
뉴얼 케이 휘트니
창고의 2층. 하단:
휘트니 창고

뉴얼 김볼 휘트니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 1795년 2월 5일에 태어났다. 그는 재능이 출중한 사업가였는데 시드니 길버트와 우정을 쌓고 사업도 함께했다. 사업 초창기에는 출장이 잦았다. 출장을 떠난 어느 날 뉴얼은 엘리자베스 앤 스미스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만났다. 뉴얼과 앤은 3년간 교제를 하고서 1823년에 결혼했다.

뉴얼과 앤은 함께 진리를 찾아가 했으며 한 동안은 고대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던 캠벨과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뉴얼과 앤은 “어떻게 성신의 은사를 얻을 수 있을지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앤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시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 구름이 집을 감쌌습니다. …… 그런 후 구름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기에 이를 받기 위해 준비하라.’”¹

이 응답이 있는 후 얼마 되지 않아 1830년 10월에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커틀랜드에 왔다. 11월에 뉴얼과 앤은 침례를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조셉과 에머가 휘트니 가족의 집 문을 두드렸다. 조셉이 뉴얼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으나 뉴얼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조셉은 “제가 선지자 조셉입니다. 형제님이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죠. 제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말했다.² 휘트니 가족은 조셉이 집에 여러 주 동안 거할 수 있도록 했고 1832년에는 집을 마련해 주었다.

뉴얼은 스미스 가족에게 묵을 곳을 마련해 준 것 외에도 자신의 창고 2층에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휘트니 창고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모임을 했고 선지자 학교도 열었다.

1831년 12월 뉴얼은 교회의 두 번째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중에 교회 재정 운영 관리자로 봉사하면서 교회가 기금을 운영하고 부채를 청산하는 데 일조했다. 1838년 가을에 휘트니 가족은 미주리 주 파웨스트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뉴얼은 다시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뉴얼은 가족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 평원을 건너 정착해 교회의 감리 감독으로 봉사했다.

뉴얼은 1850년 9월 2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

주

1. Elizabeth Ann Whitney, quoted in Edward Tullidge, *The Women of Mormonism*(1877), 41~42.
2. Joseph Smith, quoted in Elizabeth Ann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Aug. 15, 1878, 51.



댄 존스(1810~1862)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백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댄 존스는 백만 명 중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이었다. 웨일스의 선교사들에 대해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개종자 수로 볼 때, 댄 존스는 교회 역사상 침례를 가장 많이 준 선교사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¹

댄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웨일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미시시피 강에서 메이드 오브 아이오와라는 증기선 선장으로 일했다. 그 배는 일리노이 주 나부로 가는 많은 후기 성도들을 태워주었다. 그는 1843년에 교회에 들어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댄의 선교 사업은 기록된 조셉 스미스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켰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살해되기 전날 밤에 카테지 감옥 창문 밖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기에 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선지자는 가까이에 있던 댄 존스에게 죽음이 두려운지를 물었다. 댄은 이렇게 답했다.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이 크게 두렵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예언했다.

“형제님은 살아서 웨일스를 보게 될 것이며, 생전에 형제님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²

선지자의 약속은 댄과 아내 제인이 웨일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1845년에 성취되었다. 댄은 큰 확신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했다. 그는 웨일스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몇 시간이고 두 언어로 관중의 주위를 강력하게 끌면서 이야기했다고 목격자들은 기록했다.

웨일스에 있는 동안 댄은 후기 성도 간행물, 소책자 및 여러 책들을 웨일스어로 출판했다. 댄 존스의 인도 아래 웨일스에 있던 선교사들은 29개 지부를 설립했으며 댄의 첫 번째 선교 사업 기간 중 해마다 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는 1852년에 웨일스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한번 더 부름 받았으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그곳에서 약 2천 명이 침례를 받았다.

유타로 귀환하면서 댄은 많은 웨일스 개종자들을 유타로 데리고 왔으며, 51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가장 가치 있는 것”, *리아호나*, 1994년 3월호, 8쪽.
2.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601.



왼쪽 사진 촬영: 휘티니 창고, 펠트 시 앤드리스; 사진 사진 촬영: 로렌스 디 헤리스; 오른쪽 조상화: 댄 존스,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노스 워드 편집: 나부 그레그 시에버스, 웨일스 이민자들을 돕는 댄 존스, 볼 만

왼쪽부터: 웨일스 선교사 댄 존스의 초상화. 댄 존스가 선장으로 있던 배와 유사한 증기선이 일리노이 주 나부 시로 다가가고 있다. 댄 존스가 웨일스 이민자들을 돕고 있다.

순결과 정결 가르치기



매튜 오 리차드슨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부모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략에 따라
성적 친밀함에
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전 세계 청소년들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인상적인 몇 명의 십대들과 정결과 순결, 도덕적 삶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품행과 태도, 자신감과 이야기에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를 표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민감한 주제에 관해 차분하고 분명하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 청년이 서슴없이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른 청소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간결하지만 심오했던 경험은 특별히 정결과 순결, 성적 친밀과 적절한 관계를 가르치는 역할 등 자녀의 삶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적 문제를 능력껏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활동적인 청년 독신 후기 성도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를 성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주요 공급원으로 여긴 사람들은 1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주로 친구나 동료, 인터넷, 미디어, 오락물, 교과서, 대가족 혹은 교회 지도자로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거룩한 원리를 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선생님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등 효율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촉진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원리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은 잘 압니다. 바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들이나 그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그와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아이가 열한 살이나 그 이전에 인터넷 성 자료에 노출됩니다. 오락물이나 스포츠 행사, 광고나 소셜 미디어에까지 점점 더 성적인 이미지와 농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이 성 관련 이야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특정 상황과 아이의 성숙도, 나이에 달렸습니다. 부모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아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아울러 언제 무엇을 가르칠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비로소 영적인 인도가 뒤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겨우 다섯 살이었을 때 인체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웬지 좀 거슬렸지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자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1회성 행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적 친밀함이나 그와 관련한 문제를 가르칠 때 흔히들 “그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표현은 부모들이 이 주제를 1회성 대화로 가르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성숙해짐에 따라 그 문제를 되짚어 줄 때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부모들은 영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자녀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관련한 성 문제를 가르칩니다.

효과적인 배움과 가르침은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성을 주제로 가르칠 때 대개 부모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염려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은 특정 내용에 대한 거론과 토론 이상입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이야기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성 문제를 다루며, 아이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부모들은 자녀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고 합니다.¹

청년 후기 성도에 대한 제 비공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거듭하여 그 부모들이 성 관련 주제에 관해 더욱 마음을 열거나 기꺼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청년 성인들은 부모들이 그러한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바랐을 뿐 아니라 단순히 그들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편안하고 정상적이며 자연스럽게 훨씬 덜 어색한 대화를 갈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특정 화제나 상황 또는 시점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며 허물없는 사이가 되도록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부모들은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요? 특별히 더욱 사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주제에 관해 자녀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부모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움과 가르침은 주제가 현실적이며 상관성이

성 문제를 다룰 때 아이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부모들은 자녀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접근 방법에 따라 성적 친밀함에 관한 가르침은 어색하거나 비현실적이며 설교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의 관심과 의문은 실제 상황과 관찰에 따른 반응이라는 점을 깨우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아이들을 살피고 경청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영화나 스타일, 패션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나 유행가 가사 등에서 도덕 표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남들과 맺는 관계나 상호작용, 그들과 그 또래의 옷 차림새,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이성에게 기대는 정도를 살핍니다. 성적 순결이나 도덕적 표준에 대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해석을 또한 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나타납니다. 도덕이나 정결에 대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상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실생활 가운데 성적 순결과 겸양, 정결에서 모범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권고가 훌륭한 모범에 근거할 때, 권고를 더욱 따르며 경청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갖습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따라 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들 자신은 늘 사나운 모습으로 꾸짖으며, 아이들로부터는 방정한 품행이나 순종, 친절한 말씨나 즐거운 표정, 부드러운 목소리나 밝은 눈빛을 요구하는 부모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것은 그 얼마나 불합리한

**아이들을 살피고
경청하며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순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순을 눈치채고 어찌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합리화할 것입니다.”²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 제일 잘 배웁니다. 편안함보다는 긴장을,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초래하는 암시적 표현이나 난해한 “코드 표현”을 쓰는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 문제에 관한 것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청년 독신 성인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 저는 종종 “애무”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실한 와드 회원들은 애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 애무가 무슨 뜻인지 배운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잘 모르는 지시 사항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신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³ 암호나 속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알맞은 용어를 쓸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존경심과 이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이 도덕 표준과 원리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치셨는지 봅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의 여하한 성적 접촉, 즉 옷을 입었던 안 입었던, 성스러우며 사적인 다른 사람 몸 일부와 일부러 접촉하는 것은 하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에서 그러한 감정을 고의적으로 북돋우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⁴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말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와 같은 간단한 질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원리와 표준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배우는 이들이 개심을 합니다. 현재의 “삶에 관한 사실들”만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영원한 삶에 관한 사실”과 연결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복음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존중심과 그분의 기대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도덕에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에 희망은 있습니다. 부모들이 온 힘을 다해 자라나는 세대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도록 가르치는 데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은 애써 자신의 이해를 높이며 지도 기술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르침을 베풀 때, 그분이

강화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의 일, 즉, 우리 이웃이 선택 의지를 의롭게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기회인 것입니다.”⁵ ■

주

1. Bonita F. Stanton and James Burns, “Sustaining and Broadening Intervention Effect: Social Norms, Core Values, and Parents,” *Reducing Adolescent Risk: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ed. Daniel Romer(2003), 193-200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하나님과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 *리아호나*, 2010년 8월호, 72쪽.
3. Jacob de Jager, “Let There Be No Misunderstanding,” *Ensign*, Nov. 1978, 67 참조.
4. 리차드 지 스코트,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성도의 벗,” 1997년 9월, 28쪽.
5.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쪽.

부모들이 살면서 성적 순결과 겸양, 정결에서 모범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가르침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의로움을 가르치다

자녀가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델버트 엘 스테플러(1896~197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델버트 엘 스테플러는 1896년 12월 11일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0년 10월 5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별되어 봉사하다가 1978년 8월 19일에 타계했다. 이 영적 모임 말씀은 1977년 2월 1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한 것이며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찾을 수 있다.

부 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연령인 8세가 되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부터 가르치고 인성을 길러줄 기회가 있습니다. …… 주님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며, 그 시기[8세 이전]는 자녀 인생의 초반이자 그들의 언행을 책임지지 않을 때입니다. 자녀가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모범이야말로 가정에서 의로움과 신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의 모범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유익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고 싶으면 스스로 그분을 믿는 신앙을 보이십시오. 기도를 가르치려면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 절도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려면 스스로 무절제함을 자제하십시오. 자녀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스스로 자제하며 훌륭한 면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이런 모든 면에서 합당한 모범을 보이십시오.”¹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더 인상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러한 인도를 받은 자녀는 사탄의 유혹에 대항해 자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녀들이 책임질 연령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예의, 진실, 절제, 항상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와 관련해 자녀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범은 훈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매일의 가족 생활은 교회의 원리와 표준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 관행도 우리 종교에 부합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부정직을 쉽게 간파합니다. 존 밀턴은 위선이 하나님만 간파해 내실 유일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옳지 않은 것을 쉽게 파악하며 부정직과 위선에 분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설교보다 우리 삶이 보여주는 설교가 어린이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정직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부모만이 자녀의 신뢰를 연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신뢰를 존중하고 보답한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때, 그



아이는 절대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한다는 게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비난하고 다른 한 쪽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가정의 단합된 영향력은 없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해 단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혼란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엘 에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사이의 분열은 정당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가족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자녀가 인도받기 위해 바라봐야 할 그 부모는 자녀를 인도함에 있어서 단합해야 합니다.”² 우리는 자녀가 가족의 분위기와 느낌에 민감하다는 것을 압니다. 긴장과 불화를 느끼며, 이런 것은 그들이 언제나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녀는 가정을 안식처이며 세상의 악과 위험에서 보호받는 곳이라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단합과 고결성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제공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생에서 진정하고 영속적인 행복을 찾을 곳은 가정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천국이 이 지상에서 이상적인 가정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³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은 참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의 모든 충실하며 헌신적인 자녀를 위해 영광스러운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과 가족을 원하는지, 해의 왕국에서 가족이 영생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자녀의 필요 사항을 돌보고 그들이 의로운 길에 머물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지금 계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여러분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성한 방법으로 가정을 조직하고 꾸려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지상에 온 자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대문자, 구두점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함.

주

1. David O. McKay, *Secrets of a Happy Life*, comp. Llewelyn R. McKay(1967), 11.
2. Richard Evans' *Quote Book*(1975), 23.
3. David O. McKay, *Gospel Ideals*(1953), 490 참조.

자녀는 가정을 안식처이며 세상의 악과 위험에서 보호받는 곳이라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단합과 고결성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제공하는 데 필수입니다.



청소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어느 누구도 청소년들에게 억지로 영적인 경험을 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부모들과 지도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개종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할 방법은 많다.

우 크라이나에 사는 바체슬라프 구카와 자야 구카 부부가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할 때, 열세 살이었던 딸 키라는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키라는 선교사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고 장로들이 집에 온다는 것을 아는 때에는 “노골적으로 자기 방문을 쾅 닫아 버렸다.”고 키라의 어머니는 회상했다.

교회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구카 부부는 딸 키라에게 영을 느낄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구카 자매는 다른 사람의 침례식에 참석했다가 간증이 싹뻗기에 딸 키라에게 자신의 침례식에 와서 침례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놀랍게도 키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구카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셨죠.” 키라는 영을 느꼈고 부모의

침례식에 참석하고 일주일 후 선교사들을 만나겠다고 결정했다. 키라는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몇 주 후에 구카 자매는 키라의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니파이후서 2장 25절이 적혀 있었다. 침례 받은 지 2개월 반 후에 구카 부부는 딸의 침례에 참석하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키라는 결혼했고 남편 데이브와 성전에서 인봉되어 복음 속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키라는 여러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며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구카 자매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다. 구카 자매는 그 교훈이 새로운 회원인 자신과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평생 교회 회원으로 지내 온 부모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즉, 부모와 지도자들은 자녀에게 억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할 만한 곳에 초대하여 그런 경험을 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험은 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할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 세계에 있는 부모와 지도자들이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과 말씀과 청소년의 삶에 맞추어서 현대의 예들을 이야기해 본다.



청소년에게 봉사할 기회를 준다

브라질 상파울루 코티아 스테이크 그란자 비아나 와드에서는 청남들의 활동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청남 중 일부가 개인적인 시련을 겪고 있으며 신권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독단과 청남 지도자들은 협의한 끝에 활동의 초점을 재미나 오락보다는 봉사에 더 맞추기로 결정했다. 저활동인 정원회 회원 방문하기,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하기, 외출할 수 없는 와드 회원들에게 성찬 집행하기 등을 하면서 말이다. 이런 활동은 청남들에게 세미나와 일요일에 배운 원리를 실천해 볼 기회가 되었다.(니파이후서 2:26 참조)

한 신권 지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렇게 전했다. “어느 금식 주일에 모든 청남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간증을 나누면서 청남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에서 강한 영을 느꼈던 것을 눈물로 회고했습니다. 한 청남은 3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 온 연로한 회원에게 성찬을 집행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회원의 신앙심 깊은 부인이 우리 청남들을 기쁨과 희망에 찬 마음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성찬 의식 후에 그 자매님은 자신이 겪는 커다란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느끼게 되는 삶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남들은 영을 느꼈고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남들은 무척 감동적이었던 이 경험을 수년, 아마 평생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축구 경기 혹은 재미있었던 상호 향상 모임”에서도 그 같은 반응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사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경험은 청소년들이 간증을 쌓도록 돕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프랑스 양계 스테이크 렌 와드에서는 청녀 회장인 텔핀 르토 자매가 교회에 온 모든 청녀에게 교회에 오지 않은 청녀를 한 명씩 골라 카드를 쓰라고 권한다. 청녀들은 그들이 배운 것 혹은 영감을 준 것을 비롯해 그 주에 배운 공과에 관한 내용과 친근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기도 한다. 그러면 르토 자매나 그녀의 보좌 중 한 명이 카드를 모아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청녀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이 활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교회에 오지 않은 청녀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카드를 쓰는 청녀들이 서로에게 좀 더 마음을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핀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엘마서 37:6 참조)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 왔어요. 청녀들은 고무되었고, 이

고대 선지자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도 활용해 가르친다.

경험은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청소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준다

엘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가르쳤다.(엘머서 31:5 참조)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청남 지도자인 데이비드 엘머는 자신이 이끄는 청남들과 스카우트 여행에 나서면서, 청남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엘머 형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나눌지 생각했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여행에서 엘머 형제는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앤더슨 장로가 소개한, 선교 사업을 위해 선수 생활을 잠시 미룬 뉴질랜드의 럭비 스타인 시드니 고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고, 사람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성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¹

그 시간은 엄청난 경험이 되었다고 엘머 형제는 말한다.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영적 모임이 끝날 무렵, 모든 청남과 지도자들은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또 배우고 느꼈던 것을 상기하기 위해 럭비공에다 자신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아버지와 지도자들은 선교사로 봉사한 것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청남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청소년들을 아십니다.” 엘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들의 삶과 시련을 아시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이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우리는 청소년들이 영을 느낄 환경을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지속성을 유지한다

엘머 형제가 그 여행에서 청남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복음 학습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이다.

“영을 느낄 경험을 마련해 주는 게 제 책임 중 하나라고



느꼈고, 그렇게 하려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제 몫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삶에 경전 공부, 기도, 가정의 밤과 같은 영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² 우리도 여행에서 영적인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고, 청남들에게 아침에 10분짜리 영적 모임을 하게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과 아버지들은 저녁에 있을 영적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상시와는 다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의 영적인 패턴은 방해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남들이 특정 공과를 기억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 모임을 하고 기도와 경전 공부를 계속했던 그 패턴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사는 미라 보코보 가르시아 역시 지속성의 가치를 알며, 그 지속성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안다. 가르시아 자매와 남편 에드윈은 8세부터 22세 사이인 세 아들과 여섯 딸을 두고 있다. 자녀들은 모두 여러 건전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모두 생활 방향이 제 각각인데, 그럼에도 이 가족은 저녁 식사만큼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칠 순간을 찾는다.



가르시아 자매는 “음식을 하고 즐겁게 식사를 마련해서 함께 먹는 것도 자녀들을 한데 모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식사 시간은 기분을 전환하고 서로와 친해지며 주님의 축복을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일상 속에서 기회를 찾아 가르치고 듣는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사는 조셀린 필텐은 이삼십대에 속하는 여섯 자녀가 있다. 필텐 자매는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직접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이 직접 진리를 배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고 말한다.

필텐 자매는 “성급하게 자녀에 관한 선택을 하거나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대신 아이들에게 “경전이나 선지자의 권고에서 인도와 답을 찾게” 한다. 필텐 자매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이들이 찾은 것에 대해 토론할 준비를 갖추세요.” 자녀들이 질문할

때 그녀는 때때로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고 되묻는 것으로 답을 한다.

필텐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매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삶 속에서 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영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촉진제가 되어 아이들은 스스로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재하신다는 간증이 굳건해질 거예요.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영이 주는 빛과 위안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것을 더 많이 원하고 자신의 삶에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할 일들을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 생활에서 효과가 있었던 원리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가르쳐 왔던 것과 동일하다고 바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밤, 가족 경전 공부, 가족 기도 등 틀을 갖춘 토론의 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³

“산책을 하거나 활동에 차로 데려다 주고, 농구를 하고, 가족 식사를 하고, 함께 일하고, 노래를 부르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등의 시간을 통해 가족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죠. 때로는 어떤 다른 활동을 할 때에 오히려 자연스레 복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답니다.”

협력하여 공통된 목표를 이룬다

카얀 테니즈 목 자매는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를 졸업한 후 곧바로 홍콩으로 귀국했고 청년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생활에 적응하는 한편 자신이 이끄는

복음 안에서 충실히 남을 수 있었던 방법

투아 로저스

저는 열두 살 때 침례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복음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통해 제 삶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저를 도와주신 훌륭한 지도자들 덕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믿음에 따라 충실히 남겠다는 결정을 한 덕분에 놀라운 축복이 제 삶에 찾아왔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가족들의 삶까지 축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굳건해지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 기도와 경전 공부 같은 활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복음대로 살 때, 지금 그리고 영원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표준과 신앙을 지키는 데 그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제게 성전에 가도록 격려했으며,

그것으로 저는 영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 여러분의 표준을 공유할 훌륭한 친구들을 곁에 두십시오.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 가족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과 돈독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 삶을 사십시오.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표준을 따르십시오. 신앙을 행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종종 삶을 더 편안하게 하고 언제나 삶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청녀들이 간증을 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영감을 받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어느 일요일, 영원한 관점에 관해 가르치던 목 자매는 그날 교회에 온 유일한 청녀였던 한 자매와 함께 물문경을 읽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보좌와 저는 영의 속삭임에 곧바로 응했죠. 저희는 그 청녀와 한 팀을 이루어 물문경을 다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목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 청녀는 저희가 함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목 자매와 그녀의 보좌, 그리고 이 청녀는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물문경 읽기와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켰다.

목 자매는 경전 공부를 통해 그 청녀의 삶이 놀랄 정도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목 자매도 기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 경전을 읽었고, 그녀 역시 축복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도 영을 느꼈고 삶 속에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제 경험상, 청소년 중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간증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노력함으로써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 주면서 말이죠.” ■

주

1. 닐 엘 앤더슨,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51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7~20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5~98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7~20쪽 참조.



폴 비 파이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엘마서: 이 시대를 위한 교훈

니파이인들은 당대의 시련을 신앙으로 견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시련을 잘 극복하는 데 필요한 축복과 보호를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증인들입니다.

통 치 말기에 모사이야 왕은 군주제 대신 백성이 선택한 판사들로 통치하는 판사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선택한 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체제였습니다.

모사이야 왕이 제안한 그 체제의 기반은 바로 선택의지라는 원리입니다. 즉, 왕이 아니라 개인이 법에 따라 행동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가 무엇이라도 올바른 것에 반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지”(모사이야서 29:26) 없기에, 이 체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의로움을 더 잘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모사이야 왕의 제안에 대해 백성들은 “그 온 땅을 통하여 각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심히 열망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죄의 보응을 기꺼이 받고자 하였습니다.”(모사이야서 29:38)

엘마서에는 백성들이 그 제안을 채택한 후

40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마가 기록한 마지막 장인 43~62장에는 격심한 시련과 시험의 시기가 나옵니다. 이 19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백성들은 국내의 정치적 위기, 국외의 위협, 그리고 거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력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와 자유로이 경배드릴 권리를 강탈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니파이 정부는 내부적으로 두 번이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백성은 레이맨인들이 다각도로 가하는 외부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정부를 무너뜨려 속박하려 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시련으로 경제가 파탄되었기에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신성한 기록을 편집하던 몰몬은 이 시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천



여러 고난을
견디면서 의로운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올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년에 걸친 니파이인의 역사를 이처럼 자세히 기록했다라면
몰몬경은 아마 2,500쪽이 넘었을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몰몬경은 …… 우리 시대를 위해 씌어졌[습니다.]
니파이인들은 한번도 그 책을 가져 보지 못했으며, 고대의
레이맨인들도 역시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몰몬은] 여러 세기의 기록을 요약했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했습니다. ……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몰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영감을 주어 그것을 그의
기록에 포함시키게 하셨(을까?) 나는 그것으로부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¹

오늘날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은 예전에 니파이인이 겪던 것과
동일한 수많은 어려움, 즉 예배드릴 권리와 중요한 사회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가하는 외부적 공격과 분쟁의 위협을 느껴 온 후기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니파이인들은 놀라운 노력과 희생,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해 냈습니다. 니파이인들이
시련을 극복해 낸 방법에서 얻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용기와 인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올바른 소망과 동기를 유지한다.

그 모든 시련에도 의로운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올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엘마서 43:47)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왕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의지, 즉 의롭게 행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권리를 지키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법률이 보장하는 동등함,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수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엘마서
43:9, 45 참조)

사회에는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잡고자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를 따라 논쟁을 권력 다툼으로
확대시키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니파이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순수한 소망과 동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니파이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려 “주의 힘”(엘마서 46:20; 또한 엘마서 60:16; 엘마서
61:18 참조)으로 시련을 극복해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당면한 시련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소망과 동기가 순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기초하도록 마음을 항상 단속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심에 기반하여 행동하거나(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장할 때) 다른 사람의 품위를 손상한다면,
시련에 맞서는 데 필요한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낌없이 베푼다.

니파이인들은 한때 적이었던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자 투표를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엘마서 27:21~22;
43:11~12 참조)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은 다시는 전쟁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성약을 맺었기에 그들은 대신 이 중요한
시기에 니파이 군대에 “재물의 큰 분량”(엘마서 43:13)을
지원했습니다. 니파이인이 이 이주민을 존경과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불화를
조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쉬운 정치적 목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암몬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그 사람들에게 니파이인들이
베푼 친절은 보답을 받았으며 역사 기록상 가장 영감을 주는
여단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바로 2,000명의 용사들 말입니다.
오묘한 점은 바로 이 청년들이 참전한 것이 니파이인 사회가
초기에 파괴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분, 외부 공격, 경제 위기가 있는 시기에는 “우리과 같이
않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들이 사회에
얼마나 충실한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려는 의지는
니파이 국가를
보전하고 그
백성들이 시련의
시기에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암몬 백성에게
니파이인들이 베푼
친절은 보답을
받았으며 2,000명의
용사들이 배출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주의 명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양극화, 분쟁, 고립만 낳을 것입니다. 암몬 백성이 니파이인 사회에 환영받지 못했다면 아마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감사함이 아니라 분노만 양성되었을 것입니다. 이전 명의 충실한 용사는 배출되지 않고, 새로운 세대는 소외되어 레이맨인과 합류했을지도 모릅니다.

빈곤한 사람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려는 의지는 니파이 국가를 보전하고 그 백성들이 시련의 시기에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그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3. 영감 받은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주님은 니파이인이 당면할 시련을 아셨기에 이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영감받은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로나이 대장은 전사였지만 가슴판, 팔 보호대, 투구, 두꺼운 옷으로 백성들을 지키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앨마서 43:19 참조) 그 결과, 니파이인은 레이맨인보다 훨씬 더 전쟁에서 우세했습니다.(앨마서 43:37~38 참조) 이후, 모로나이는 백성들에게 성을 주위에 흙더미를 파 올려 그 흙 제방 위에 목재로 만든 구조물과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짠 틀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앨마서 50:1~3 참조) 이렇게 영감에 따라 준비한 덕분에 니파이인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로나이가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보존될 수 있게, 백성들에게 의로워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감받은 지도자의 현세적, 영적 지시에 귀 기울인 니파이인들은 보존되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영감 받은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만 패배와 고통이란 결과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인도하여 오늘날의 시련을 준비시키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998년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영감 어린 지시와 경고를 교회 회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 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빛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경제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앞으로 폭풍우 치는 날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²

최근에 저는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속삭임을 느낀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그의 아내는 투자를 현금화하고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고 빚을 청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그 형제님은 자립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닥친 경기 침체는 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립한 덕분에 그 부부는 선교 사업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 시대를 위해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할 때, 몬슨 회장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해 있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서 자신을 잊고 나아가 구조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귀 기울일 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물몬경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니파이인들은 당대의 시련을 신앙으로 견뎌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시련을 잘 극복하는 데 필요한 축복과 보호를 주실 것임을 알려 주는 증인들입니다. ■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6쪽.
2. 고든 비 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성도의 빛*, 1999년 1월호, 53쪽.



모로나이와
같은 영감 받은
지도자들이
주는 현세적,
영적 인도에 귀
기울임으로써
니파이인들은
보존되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영감에 찬
경고를 무시했을
때만 패배와
고통의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적진에서 생존하는

법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교 회 세미나리 100주년을 경축합니다. 기억의 실마리를 풀어 거슬러 올라가서, 이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인력이 매우 부족했던 시절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143개국에서 학생 375,008명이 38,000여 자원 교사와 전임 교사들과 함께 세미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기 위해 지혜를 쌓으라

저는 과거를 보아 왔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킬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진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대적이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침투해 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적은 집에도 있고, 오락물이나 대중 매체, 언어를 비롯해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에 침투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전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잠언 4:7)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20대 초반 공군 조종사였던 저는 이에섬(Ie Shima)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섬은 오키나와 북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외딴 섬입니다.

어느 고독한 여름 밤, 저는 절벽 끝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행히도 살아남게 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한 때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교사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인생의 기본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 세미나리를 가르친 것은 1949년 브리검 시에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그 세미나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세미나리에서 가르치던 과정은 구약, 신약, 교회사,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당시에 몰몬경 수업을 새로 만들어져, 저는 몰몬경 새번역을 맡아서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저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성신의 은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적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살면서 성신의 은사에 대해 늘 가르침을 들어왔겠지만, 들어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후에 남은 길, 즉 내면에서 성신의 인도와 보호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발견해 가는 길을 혼자 걸어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청남이든 청년든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성신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일은 일생의 과제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적진 속에 살면서도 기만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포함해서 교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성신의 속삭임으로 먼저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저지른 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 느낌이 안 좋았어.”라든지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단지 실천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바로 여러분이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도록 경고하는 성신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이 성신과 교통하는 길을 계속 열어 둔다면 절대 하지 않게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 없이 성신과 교통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나 남을 기만하는 일, 도둑질, 부도덕한 행위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능과 인도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할 일” 목록에 가장 먼저 기도를 넣으십시오. 대개 그것은 소리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회선이 늘 있습니다. 아무도 저편에서 듣지 않는다고 대적이 여러분을 설득하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약속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완벽한 건강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인 수용체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문신이나 기타 몸을 훼손하는 유사한 행위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예언적인 권고는 무엇이 참된지를 가르쳐 준다

저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성이 전세에서 이미 정해졌음을 압니다.¹ “그리고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교리와 성약 88:15) 성이라는 문제는 도덕성에 관한 모든 문제가 그렇듯 지도자들이 크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인간이란 원래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태어난 존재인지라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선택의지가 완전히 거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덕으로 가득한 삶을 선택할 특권이 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하고도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유혹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좇아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교회의 다른 모든 회원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결의 법과 교회의 도덕 표준을 어긴다면,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굳건해지도록 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거나, 소위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을 고수하고 지지하며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의 중대하고도 거룩한 기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²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를 대표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선택의지를 사용해 안전 지대를 지키거나 재확보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모세서 3:17)라고 말씀하시며 아담과 이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은사가 바로 선택의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불순결한 충동이나 불건전한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런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 그곳에 있다면 빠져 나오십시오.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십시오.”(모로나아서 10:32)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자신의 몸에서, 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의 표준이며, 변경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 부도덕한 행동을 실험하거나 탐색하려는 유혹이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수양, 즉 자기 수양입니다. 수양(*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제자(*disciple*) 또는

추종자(*follower*)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주의 제자이자 추종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한두 명은 ‘이미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버렸으니, 난 죄인이야. 이젠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세미나리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속죄는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속죄는 죄를 씻어내고, 어떤 일로 죄책감을 느끼든 그 죄가 만든 결과를 지울 수 있습니다.

죄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만성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걷어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적군이 아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때까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자주 회개하면 평화가 오래 지속된다

인생은 시련과 실수의 연속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할 일 목록에 “자주 회개하기”를 적어 넣으십시오. 자주 회개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기에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시오. 물론 혼자가 되어 지내야 할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 나는 선한 친구의 품 안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을 얽어 매도록 방치해 왔던 습관이란 밧줄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³ 여러분은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적과 일대일로 대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대적이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유혹하기 위해 직접 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지를 확고히 행사할 수 있고, 대적은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미나리의 축복을 최대한 누리라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배우고 활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 든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는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입니다.

이 밖에도 할 일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알며, 모든 일에 대해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미나리 공부를 하는 이 몇 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의 교리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위대한 축복을 최대한 누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그 결혼은 성전에서 인봉된 결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머지 않아 여러분이 안전하게 한 와드나 지부에 정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과 신앙으로 나아가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성신의 은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은사를 구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제3니파이 18:19~20 참조)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깊이 신뢰합니다.

청소년기에 얻은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어느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간증을 얻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구하면,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그런 간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

2012년 1월 22일 세미나리 100주년 기념 방송 말씀에서 발췌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참조; 또한 모세서 3:5;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2. 고든 비 헝클러,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1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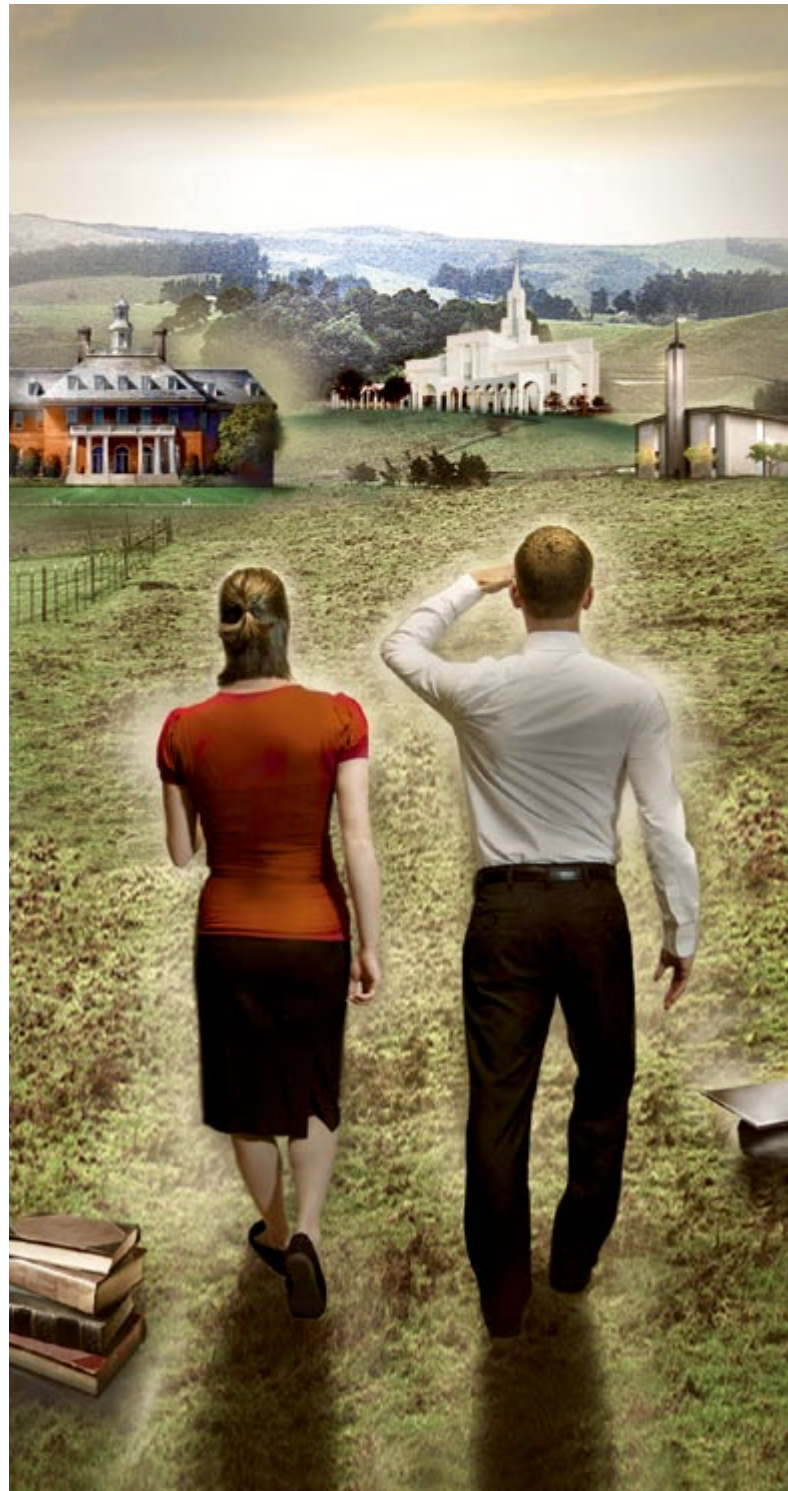


전체 말씀 보기

seminary.lds.org/history/centennial에서 패커 회장의 말씀 전체를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 공부를 하는 이 몇 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의 교리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위대한 축복을 최대한 누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부 모님은 교회 회원이었지만 전혀 활동적이지 않으셨다. 이 때문에 때때로 논쟁이 일어났다. 부모님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교회 가는 것, 내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밖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교 지도자이자 와드 합창단원이었기에 교회 모임이 때때로 가족 행사와 겹치기도 했다. 어느 날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집회소에서 연차 대회 방송을 보러 가려고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손님이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

엄마는 “가족이나 교회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우리랑 같이 남아 연차 대회를 보지 말든지, 아니면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벌을 받든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지 않으려 했다. 대신 그 순간 내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달라고 간청했다. 가족과 함께 집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교회에 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는 성신을 느꼈다. 성신이 내게 엄마에게 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느꼈다. 현재 내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권고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느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내가 벌을 받지 않고도 연차 대회에 가게 해주셨다. 이것은 내 삶에서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것은 내게 경전에서 말하는 다음 진리를 확인해 주었다.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 10:5)

복음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영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는 성신을 느낄 수 있었다. 성신이 내게 엄마에게 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선택에 항상 만족할 수 있음을 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며 성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간증을 굳건히 해주었다. ■

피 티아나리블로, 마다가스카르



내가 속할 곳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내 삶은 온통 불행투성이었다. 일곱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죄다 잃어버리셨다. 나는 수양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또래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 내가 속할 곳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언제나 반항만 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지금은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행복을 느꼈던 때는 사람들을 도울 때였다. 그들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든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든 말이다. 내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해에는 휴가를 가서 한 할머니를 만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를 하기로 했다. 그 할머니는 기독교인이라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없었다. 아마 그분이 존재하리라고 여겼던 때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시련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자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특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다. “물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다오.”

나는 물론들에 대해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터라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Mormon.org에서 무료 물문경을 한 권 신청했다. 선교사들이 며칠 후 물문경을 갖고 왔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알 수 있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기도하고 물문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을 찾아나서는 아름다운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담배를 끊었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멈추었으며, 살아오면서 겪은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 내 죄와 내가 느낀 모든 아픔에 대해 고통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다. 2007년 10월 28일에 나는 침례 받고 그분의 교회에 들어왔다.

환멸에서 행복으로 이어진 그러한 변화를 내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면

행복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나는 내 초등학교 부름을 사랑하며 폴란드에서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서 봉사 활동 계획을 도울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한다. 정기적으로 교회 봉사를 통해 남을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은 행복을 더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현재 나는 순수한 사랑으로 매사에 임한다. 나는 인생이 아름다우며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구주를 따를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내가 만난 그 노부인이 옳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 마침내 내가 속할 곳이라고 아는 곳에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

도로타 뮤지엘, 폴란드

내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특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다. “물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다오.”



당신의 교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봐요

오빠를 만나러 갈 때 나는 승무원들이 앉는 비행기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곳의 두 좌석 옆은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었다.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한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건너편에 있던 한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막 전임 선교사로 떠난 훌륭한 친구 하나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딸은 교회에 대해 조금 알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그러자 곧 승무원이 “그 교회”가 여성을 반대하기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남성은 그와 유사한 말을 들었다며 후기 성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며 신권을 소유하거나 모임을 감리할 수 없고, 교회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런 후 나에게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물었다. 일곱 명이 모두 나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내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 신앙개조를 외웠고, 십대가 되고 청년 성인이 되었을 때 조셉 스미스의 시현과 물문경에 대해 간증을 나누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머릿속이 새하얗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첫 마디를 내뱉었다. “상호부조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들 표정을 보니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신권은 여성들과 연계해서 움직이며 모든 여성은 상호부조회 회원이죠.” 나는 설명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여성이며 그분이 전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인도하세요. 여성의 책임은 회원들의 삶, 특히 가족들의 삶에 부드러움과 사랑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이상해서 여성이 남성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며 남성처럼 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로 여성이 여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가정에서 공동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은

이런 분야에서의 권고를 듣기 위해 여성들에게 크게 의지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믿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참조) 우리는 서로가 없는 온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말을 마쳤을 때 나는 축복이 임한 것을 느꼈다. 내가 말한 것이 영으로부터 왔음을 안다. 모든 사람이 내 설명에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첫 마디를 내뱉었다. “상호부조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군요.”



만족한 듯이 보였다. 그때 그 남성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봐요.”라고 말했다.

그 이후 두 시간 동안 나는 회복에 대해 말하고 질문에 답하며 내가 사랑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행복한 특권을 누렸다. ■

사우나 무어, 미국 버지니아

직장을 택할 것인가? 교회를 택할 것인가?

우리 부부는 1981년에 일본 도쿄 성전에서 결혼했다. 결혼한 후 처음에는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직장이 있는 것에 감사했으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청했고

수입 범위 내에서 살고
십일조를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방편을
마련해 주심을 우리는
알았다.

한번은 아내가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오려 왔는데, 내
친구 역시 똑같은 광고를 오려서
가져왔다. 바로 전임 영어 교사

구인 광고였다.

나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갈을 받았다. 면접 말미쯤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 “이력서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로서 자원 봉사를 했다고 썼던데, 그렇다면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할지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더 좋은 직장이 필요했기에 그 질문은 상당히 난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입가에 살짝 웃음을 띤 면접관은 “아,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 후 그날 저녁까지 회사에서 결정할 테니 전화해서 결과를 알아보라고 한 뒤 면접을 마쳤다. 그 방을 떠나면서 나는 면접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늦게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큰 두려움을 안고 그 회사에 전화했다.

“면접 결과가 궁금한데요. 저 떨어진 것 맞죠?” 나는 비서에게 물었다.

나는 비서의 대답에 놀랐지만 기뻐다.

그녀는 “저희와 함께 일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달 후에 나는 그 직장을 얻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비서의 설명에 따르면 면접관은 후기 성도 전임 선교사들 옆 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종종 선교사들이 아침에 전도하기 위해 기운차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했다. “교회에 가야 할지 혹은 일요일에 일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서는 “그분은 똑같은 교회에 속한 당신이 선교사들이 그들의 교회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라고 말했다. “운이 참 좋으시군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가질 수 있었다.

이 값진 경험을 떠올릴 때면 나는 고무되고 위로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 신문 광고를 가져다준 아내와 친구의 영감, 근면한 그 선교사들과 그들의 훌륭한 모범, 우리의 자비로우시며 사랑 많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별하실 기적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다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
켄야 이시이, 일본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는 법

교회 잡지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청년 성인들과 함께 순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며 겪는 어려움과 축복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 성인들이 나눈 거리낌 없고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고양되었고 영감을 받았으며, 여러분도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결혼과 육체적 친밀함의 성스러운 특성을 중요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부도덕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순결을 지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틴 이삭슨, 노르웨이: 경전에 순결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리지 쟁킨스, 미국 캘리포니아: 순결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순결은 곧 생활 방식이에요.

리즈 웨스트, 영국: 저는 내가 누구이고, 인생에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룻밤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십 대 때는 구원의 계획을 꼭 짤 수 없었지만, 이 계획은 매우 도움이 돼요. 영원한 결혼이라는 개념은 정말 훌륭해요!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과 함께하도록 지상에 보내셨고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안전할 뿐 아니라

행복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을 거예요. 제가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고 친구들에게 “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이 파티에는 가지 않을 거야”, “이 일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며 그 원리를 나누면, 친구들은 저를 존중해 줘요. 결국은 저를 옹호해 주기까지 하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아시며 진정으로 염려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힘이 돼요.

안나(아나) 블라소바, 러시아: 제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임을 생각하면 큰 도움이 돼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제 선택 때문에 그분이 창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캐일리 윌트모어, 미국 플로리다: 저는 가족의 신성을 이해하면서 제게 순결의 법에 따라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겼다고 믿어요. 또 도움이 된 한

가지는 계명을 어기면 제가 겪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팔란드(파에) 토머스, 아이타: 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기다려?”라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 들었죠. 차라리 저는 순결의 법에 따라 산 다음에 평안을 느끼고 싶어요.

히폴리트(헵) 코우아디오, 코트디부아르: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한 가지는 가족 선언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을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¹

다른 한 가지는 총관리 역원들이 순결에 관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분들은 부도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경고하고, 몸을 학대하는 것이 영혼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쳐 주세요.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언젠가 부활한 몸을 입을 수 있도록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구주께서 치르신 대가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²

리즈: 저는 열다섯 살 무렵에 친구와



구주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몸을
얻었어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구주께서 치르신
대가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나는 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우리는 제가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나요. “그래, 하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날 밤, 네가……?” 하지만 저는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선택의지와 계명을 주셨고 사탄이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제 친구가 말한, 어떤 일이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짝을 이루는 파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선택을 우리가 예 또는 아니요 하고 말하는 마지막 순간에 해서는 안 돼요. 선택은 그 전에, 우리가 ‘파티에 갈 것인가?’ 하고 자문할 때 해야 해요.

미리 어떤 일과 그 결과에 관해 충분히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그 순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런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거야.’라고 해 둔다면 여러 문제를 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의지와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성약, 즉 침례 성약이나 성전 성약도 여러분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파예: 저는 침례 받기 전의 제 삶과, 성약을 맺은 지금을 비교하며 제가 인생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속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맺은 성약을 떠올릴 때면,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냐: 특히 우리는 성전에서 영원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에 관해 생각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지: 많은 경우, 우리는 친밀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올바른 권세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사람과 함께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약입니다. 우리는 성약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저는 제 삶에서 이 단계에 오를 만큼 정말로 준비되었습니다.” 성약은 제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올바른 순서대로 하고 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제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조너선 토마시니, 프랑스: 제가 맺은 성약을 깨다면 저는 저 자신과 하나님께 신의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 성약은 아내 될 사람에게 자제력이 있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준비했으며, 그것은 순결을 지킨 배우자가 되어 주고 싶은 제 소망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순결의 법을 구식이라 여기는 근거에 관한 많은 주장이 있는데, 상당수는 설득력 있고 복잡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접해 보으며 여러분의 표준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리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표준과 열쇠

“그 표준은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견상 현대 사회의 표준과 모순되고, 아무리 표준이 하찮게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여러분에게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승인하거나 경고하는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할 경우 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고 여러분을 다시 주님께 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영원히 가뉘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회개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리야호나, 2003년 11월호, 26쪽.

우리에게 주신 “충고”가 생각나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셨는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해 볼 만한 것, 즉 후보가 많다는 의미였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충격을 받은 게 기억나요. 그 뒤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야!

조너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제할 때 상대와 성적으로 맞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좋아하는 남자와 교제하다가 관계를 맺은 후 서로 맞지 않다고 느껴서 깨진 경우를 예로 들었죠. 그녀는 그 일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아주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궁극적으로,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서로에 관해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하고 순결의 법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는다면 결혼했을 때 훨씬 잘 맞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나: 제가 늘 접하는 가장 흔한 주장은 두 사람이 사랑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마틴: “우린 서로 사랑해.”라는 변명을 들을 때면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분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욕정이 슬그머니 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죠.³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생각해도 그것은 욕정이에요. 그들이 진정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고 친밀함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혼전 성관계는 서로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을 지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표준을 지키도록 지금 도와줄 수 없다면 어떻게 나중에 서로 지지해 줄 수 있겠어요?

캐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순결의 법이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자신의 종교에서 주는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맞다고 느끼는 대로만 살았죠. 그 친구는 성관계가 자기만족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런 만족감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 친구는 제가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놀란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계명을 구속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계명을 지키면 더 행복해지기에 계명대로 산다고 했죠.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구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우린 계속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리즈: 이 모든 주장에 관한 대답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더 위대한 계획이 있으며, 책임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자신의 몸을 더욱 존중하게 돼요. 이러한 원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장소를 찾게 되죠.

여러분이 순결의 법대로 살도록 마음먹는데 어떤 영향이나 모범이 도움이 되었나요?

합: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친구는 약혼을 했죠. 하루는 곧 있을 그 친구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두 사람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니?” 친구는 이렇게 답했어요. “순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감독님이나 부모님 앞에서 하면 불편할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조녀선: 지금은 청년 성인이 되었기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교회 지도자들의

**“저는 계명을
구속으로 여기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면 더
행복해지므로
계명대로 살아요.”**

가르침을 상고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정보를 비롯해 많은 훌륭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가족이 보여 준 모범은 복음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리지: 자라면서, 교회 회원인 또래 친구들은 한 시간 반은 가야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은 저밖에 없는 데도 지도자들이 항상 상호 향상 모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세미나리에 오셨어요. 제게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빠짐없이 오셨어요. 꼬박꼬박 말이죠. 그분들은 절대 “학생이 한 명뿐이니 오늘은 수업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기억나는 것은 지도자들이 한결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저는 영을 느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신의 은사에 대한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겐 부모님과 가족과 지도자가 있었지만 학교에선 혼자였어요. 하지만 영이 함께해 주었죠. 따라서 인생에서 영을 동반하게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순결의 법을 지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리지: 저는 저만의 간증을 얻으면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복음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영똥한 데로 새기가 정말 쉬워요. 하지만 견고한 복음 반석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예요.

합: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결과가 따라요. 이것을 영적인 면에 적용하려면 영적인 면을 키워야 해요. 영을 키우기 위해 해야 할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전 읽기와, 영과 함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의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런 목표를 성취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해야 하죠. 우리는 그분께 힘과 영을 받아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권고를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꿈을 파괴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겨 내십시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물문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⁴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Jeffrey R. Holland, “Of Souls, Symbols, and Sacraments”, *Brigham Young University 1987-88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1988), 77-79 참조.
3. “죄를 짓는 순간, 순수한 사랑이 한쪽 문밖으로 내몰리고, 욕정이 슬그머니 다른 문으로 들어옵니다. 사랑은 욕욕과 견잡을 수 없는 열정으로 뒤바뀝니다. 여기서 용인된 것은 악마가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는, 혼전 성관계를 합리화하는 교리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279)
4. 토마스 에스 몬슨,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3쪽.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 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시는 권능입니다. 신권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신권으로 의식이 행해지고, 축복이 주어지며, 성전 사업이 성취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구주를 대표하기에 구주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들을 함으로써 신권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신권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복장, 행동, 말, 봉사, 심지어 생각을 통해서도 신권을 존중하게 됩니다.

청녀들 역시 침례 성약을 지키고 성찬이나 성전 사업 같은 신권 의식에 경건히 참여함으로써 신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청녀들은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혹은 다른 신권 소유자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들의 신권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신권으로 성취하는 일들을 존중함으로써, 신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의식과 성약들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신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신권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권능에 대해 감사하고 그 권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은 그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될까?’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표자임을 깨닫는 것이며, 여러분의

행실에서 그분께 받는 신뢰에 경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메이슨 알, 19세, 미국 콜로라도

정결하게 되십시오



저는 청녀이므로 신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녀는 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짐으로써 신권을 존중합니다. 청남들이 깨끗한

생각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신권을 존중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남들이 신권을 존중하도록 돕고, 우리 또한 신권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사 비, 14세, 미국 애리조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십시오

제 생각에 신권을 존중하는 주된 방법은 주님이 지상에 계셨더라면 몸소 하셨을 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권에 성임될 때 하나님께 한 모든 다짐, 의무,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신권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우리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라는 그분의 명을 따르게 됩니다. 지상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종들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돕게 됩니다.

비스마르크 비, 18세,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신권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십시오

저는 신권을 존중하는 것이 존경심과 확신을 갖고 신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와드에서 하는 것처럼 신권과 성찬을 존중하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있다면, 성찬을 전달하고 준비할 때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흰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와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입니다.

한센 비, 15세, 미국 텍사스

구주를 기억하십시오



신권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의 권능이며 우리에게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신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권을 존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받은 가르침대로, 즉 구주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영을 동반할 때 우리는 목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으며 복음 표준에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 카일리 이, 제이튼 비, 조지프 이, 알렉산드라 알, 카일리 브이, 얼리샤 에프, 하일리 더블유. (사진 없음); 미국 아이다호

신권을 지지하십시오

제게 신권을 존중한다는 말은 청남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청남이 신권을 존중하는 것을 볼 때 더욱 평화를 느끼며 그 청남에게 더 많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청남에게 신권을 주셨기에 저는 신권을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청남의 의무라고 느낍니다.

멜린다 비, 16세, 미국 워싱턴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신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표준을 낮추어야 할 상황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미나리에서 구역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침으로써 자신의 신권을 존중한 애굽의 요셉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청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정숙한 옷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조셉 비, 16세, 미국 텍사스



신권은 신성합니다

“청남과 청녀는 …… [신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또 그것이 신성[함] …… 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이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신성한 장소에서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없이는 그러한 의식들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에 합당하게 되도록 …… 생활해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44쪽.

다음 질문

“왜 일부 교회 회원들은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느냐고 묻는 비회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11월 15일까지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혹은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현명해지고, 친구가 되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젊었을 때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얻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고무하고 강화하십시오.

정 말로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경전 구절에 나오는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엡마서 37:35) 배움의 과정은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지능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학교 공부와 독서를 통해 얻은 배움으로 지식을 더합니다. 삶의 경험을 더합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 단계인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침례 때 스스로 받들겠다고 약속한 율법, 의식, 성약에 충실하고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자주 참석하며, 신권과 성전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신의 은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6편 참조)

지혜에 영적인 은사가 더해지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잠언 4:7) 젊었을 때 지혜와 명철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으므로 아버지는 유태 서부에 있는 친척 아저씨 댁 목장에서 일손을 거들도록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저는 소들이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풀밭을 놔 두고 왜 하필 가시철조망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 울타리 밖의 풀을 뜯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무척이나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 젊을 때 언제나 바깥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가 보려 합니다. 인간, 즉 육욕적인 인간인 우리는 가시철조망 사이로 머리를

내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바깥쪽 한계까지 가지 않고서도 삶에서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며” 그 지혜와 더불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잠언 4:14~15)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경계선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가시철조망 사이로 머리를 내밀지 마십시오.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지혜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과 더불어 잠언에서는 또한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잠언 4:14)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감이니라]”(잠언 1:15~16)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 협착하고 좁은 길”(니파이후서 31:18)에서 벗어나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좋은 친구라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강화하고, 끝까지 견디게 해 주는 복음 원리대로 살도록 돕습니다.
2. **진정한 친구라면 그들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좁고 협착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은 이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중 많은 이가 타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사악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들에게서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인생에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을 고양하고 강화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쓰러진 등대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빛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잠언 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의로운 길에서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충실한 등대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18~19절)

그들은 정말로 왜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빛도, 인도도 없습니다.

빛이 없는 등대에 의지하는 일이 어떤 것이지 아십니까? 어두워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비행기에 전력이 끊어진다면, 전기 없이 작동하는 것 외에는 항로를 안내할 어느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구름으로 가득한 12킬로미터

상공을 홀로 비행할 때 완전한 무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의지하는 불빛인 등대가 쓰러져 버린다면, 그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인도를 바라며 여러분의 빛에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선한 모범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어 의로운 길에서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충실한 등대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곳에 계십시오.

영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도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어둡고 황량한”(니파이전서 8:4) 세상에 결코 홀로되어 슬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열심히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얻으려 할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과 영, 곧 성신의 빛을 통해 지혜를 얻고 복음 진리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고양하고 강화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에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영광스럽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댄스 파티 복장

크리스탈 마틴

나는 무리를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십 대 시절에는 복음대로 생활하기가 종종 힘들었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교회 회원이 많지 않았고 비회원 친구들 때문에 올바른 길에 남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너 이거 꼭 입어야 해. 네 눈동자 색깔과 잘 맞을 거야.”라고 한 친구가 댄스 파티 전에 말해 줬다. 그 친구가 내게 빌려 줄 옷을 들어 보였는데, 그건 소매가 없는 옷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옷 위에 상의를 걸치기로 마음 먹었다.

댄스 파티에 가보니 소매 달린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나만 튀는 것 같았다. 더워지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내게 상의를 벗으라고 했고, 안 입을 편이 훨씬 예뻐 보일 거라고도 말했다.

상의를 벗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순간

내 축복문 내용이 떠올랐다. 축복문에는 내가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나와 있다. 순간 나는 올바른 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다. 나는 상의를 계속 입고 있기로 했다.

때때로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나만 하지 않는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으나 나는 굳건히 버텼고 그 덕분에 축복받았다. 나중에 나는 많은 사람이 나를 훌륭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 몇 명은 내가 표준을 따르는 것에 대해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모두가 다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못살게 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교회 표준을 따르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기에 나는 선교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올바른 길에 남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복장 표준

“절대 여러분의 복장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특별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 청녀는 …… 어깨를 드러내[는] ……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6, 7쪽.

복장과 외모

“성령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일정한 표준을 지켜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입니다.

김 은 언제나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저는 김에게 단정한 치마와 블라우스, 단정한 수영복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치마 단이 정확히 얼마나 내려와야 하고 목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 파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숙함과 관련된 원리와, 매력적으로 보이면서도 단정한 옷을 찾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치마 길이를 기발하게 늘리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옷을 처음 입어보았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옷은 보통 정숙하지 못한 것이거나 앞으로 입더라도 절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옷이에요. 그런 옷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 그냥 도로 갖다 놓습니다.”

김이 합당하게 생활하려 할 때 성신은 옷을 고르는 김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김은 정숙함에 대한 표준대로 생활하고, 복장과 외모에 대한 규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김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며(고린도전서 3:16 참조) 자신의 몸을 돌보고 보호하며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보호하고 안팎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전을 계획할 때, 핵심은 성전이 주님의 집이므로 성전은 곧 그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건물로서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서 참여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에 성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딸입니다! 대표하고,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은 원리는 여러분이 몸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더더욱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표하고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이런 지침이 나옵니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여러분은 [주님께]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¹

한 청년은 이 지침을 읽고서 정숙하지 못한 것의 경계선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옷장에서 구주의

대표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가게에 가면 입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옷은 아예 입어 보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하겠죠. 왜 유희를 자초하겠어요?” 그 청년은 대표하는 것에 관한 원리로 그 같은 확고한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중하며

우리는 구주의 대표자로서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모사이야서 18:9) 일정한 표준을 따르겠다고 동의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깨끗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정결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주님과 여러분의 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하고 그들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블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녀들이 너무 몸에 꼭 끼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깊이 파인 옷을 입을 때, 그것은 주위 청남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는 오직 성적 매력에만 달려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자신의 마음속에 심게 된다는 점을 [청녀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딸을 정의할 때 한 번도 이런 인식이 포함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²

청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특히 청남들이 정결한 생각과 행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서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경의를 표하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틀이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의 신성함과 그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듯, 우리의 복장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복장은 우리가 성전 의식과 영원한 성약에 대해 적합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³

성찬 의식에 참여할 때 “안식일 복장”을 함으로써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하십시오. “청남은 성찬을 집행할 때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⁴ 청녀 여러분, 정숙한 복장을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집에서, 학교에서, 바닷가에서, 무도회장에서, 혹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정숙한 복장의 모범이 되십시오. 옷을 고를 때 김의 모범을 따르고, 결정을 내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⁵

복장을 선택할 때 대표하고 존중하며 경의를 표한다는 이 세 원리를 따를 때, 여러분은 구주의 사랑하는 대표자로서 “빛을 발하게”(교리와 성약 115:5) 될 것입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11), 6쪽.
2. 엠 러셀 블라드, “어머니와 딸”,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20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정숙함: 주님에 대한 경건”, 리야호나, 2008년 8월호, 20쪽.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7쪽.
5.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8쪽.



말씀으로

강화되며

청소년들이 경전에서 배우고, 위로받으며,
인도받았던 때에 대해 간증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전에 의지하며

“빛으로 가득한 선물 상자와 같은 경전은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 주고 하늘에서 오는 인도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경전의 힘”,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쪽.

십 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이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왼쪽 난 참조)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암기한 경전 구절이 도움이 되었던 때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해 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영혼에 평안을 느꼈어요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교리와 성약 121:7)

수년 간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성구는 교리와 성약 121편 7절입니다. 이 성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세미나리에서 이 성구를 암기했으며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떠올립니다. 이 성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시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저는 좌절하고 낙담해질 때 평안을 느끼기 위해 이 성구를 되새깁니다.

이 성구는 제가 참석한 파티가 제가 있어서는 안 될 곳으로 변해 버렸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술이나 담배를 권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성구는 제 믿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이 성구는 또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5년간 단짝으로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도 같이 했고 여행도 같이 갔으며 주말마다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어울리기를 꺼려 하는 언니들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제게 자신의 친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에 관한 저의 믿음을 고수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을 늘 기억합니다.

제 믿음을 깨뜨리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며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진정한 기쁨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구는 제 간증을 굳건하게 해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렌 제이,
16세, 미국 아칸소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리라

고등학교 입시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청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저는 시련과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저를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제가 염려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교사이시며,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음을 압니다.

어빈 오,
16세, 엘살바도르

사진 촬영: 켈트 시 앤더슨과 크리스토퍼 아버네즈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이 성구는 제가 유혹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성구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성구가 생각나면 매번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유혹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제스 에프,

17세, 미국 유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네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이는, 보라, 내가 참으로 네 생애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4:8)

이 성구를 암기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무섭거나 혼자라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 성구를 떠올릴 때마다 용기를 얻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청남 청년인 우리는 특히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인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서 따뜻하게 안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배우기를, 제 역할을 다할 때 주님이 언제나 곁에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과 이 성구 덕분에 저는 언제나 그분께 의지할 수 있음을 압니다.

소피아 아이

15세, 우루과이



목표를 세우십시오

경전 구절을 몇 개 암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세미나리 성구 익히기에 나오는 성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 혹은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경전 구절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바른 길입니다

선택할 길은 많으나 오직 한 길만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니파이후서 9:41; 31:17~21 참조)



초등회에서

청남 혹은 청년으로 진급할 때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경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남에 대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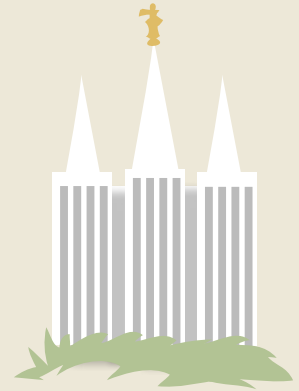


아론 신권—구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김
성찬 전달하기
금식 헌금 모으기
가족 강화하기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하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여러분을 강화시켜 줄 표준

활동
자신이 속한 정원회와 함께 봉사하기
재미있는 상호 향상 모임!



성전 가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 받기
성약을 맺을 준비하기
성신 느끼기

준비하기
선교 사업
결혼과 아버지 되기

초등회에서 진급하는 예비 청남들에게,

여러분이 열두 살이 되면, 아론 신권을 받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신권을 주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주께서 하시듯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제는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신권 소유자들이 어떻게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며 침례와 축복을 주고 선교 사업을 하고 가족을 이끄는지를 보고 들으십시오. 복음 표준대로 살기 위해 늘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아론 신권을 받을 그 위대한 날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진실한,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남 회장

진급할 때

청녀에 대한 모든 것

새로운 친구

함께 배우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기
서로를 지지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키우기

진리와 의로움을 수호하기
간증 나누기

개인 발전 기록부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여러분을 강화시켜 줄 표준

성전 가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 받기
성신 느끼기

성약을 맺을 준비하기

활동

함께 봉사하기
재미있는 상호 향상 모임!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을 준비하기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모범
보이기
충실한 아내와 어머니 되기



초등회에서 진급하는 예비 청녀들에게,

여러분이 청녀로 진급할 날을 생각하면 몹시 흥분됩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청녀회에서 여러분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증인이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 구주의 빛이 온 세상에 비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목걸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경전을 공부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며,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오른쪽 사진 촬영: © ELISATH PHOTOGRAPHY

아리가에게

안녕! 여기는 멕시코야. 곧 생일이 다가온다는 네 편지를 읽고서 기뻐어. 초등회를 떠나야 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 줄까?
 나 역시 초등회를 떠나려 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친구가 없을까 봐 걱정했지. 초등회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청년에 가면 나이가 제일 어려지는 것도 두려웠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게 다 잘 되었다. 감독님은 생일 전에 접견하시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일요일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부끄러워서 초등회 교실에 있었어. 다행히도 청년 지도자 한 분이 거기 있는 나를 발견하셨지. 그 자매님은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자, 교실로 갈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디아즈 자매님은 개회 시간에 나를 환영해 주셨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임지를 주셨어. 나중에 나는 이 세 책자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교실을 둘러보면서 나처럼 초등회에서 인사해 주었어. 곧이어 두려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나아졌다.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은 특별했어. 어떻게 복음대로 살고 어떻게 가족과 친구를 도우야 할지 배울 수 있었거든. 그리고 해마다 야영 가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 난 이제 원계반이고 머잖아 개인 발전 기록부를 끝마치게 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늘 기억하게 해 줄 청년 메달을 하루빨리 목에 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 날개를 활짝 펴고 청년으로 날아오르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사랑으로,
 마리벨

편지를 드림 : 브라운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환영하며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사귀 색깔을 바꾸나요? 이 네 친구들이 사는 곳도 그렇습니다. 노아 비, 딜런 엘, 패트릭 엠, 벤 엠은 모두 캐나다 동해 연안에 있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에 삽니다. 나무들처럼 이 네 소년도 자신들의 삶에 찾아올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1년 내에 열두 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청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늘 하던 대로 하세요

노아가 이사를 오자 새로운 친구들이 노아가 섬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명 중 생일이 가장 빠른 노아는 이제 다른 세 친구가 청남 조직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청남들이 저를

받아줄지, 그들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가 걱정스러웠어요.” 노아가 청년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노아는 힐라맨의 용사에 관한 초등학교 노래를 정말 좋아하며, 그 용사들에게서 신권 정원회가 어떻게 함께하고 단합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노아가 전하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세요.”

신권을 존중하세요

패트릭에게 신권을 받는 것은 단지 몇 살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준비된다는 의미입니다. 패트릭은 “열두 살이 되었다고 해서 신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딜런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딜런은 성찬을 전달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려고 교회에 15분 일찍 옵니다. 딜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너 번 정도 성찬을 전달했는데 매번 영으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무더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벤은 성찬 전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서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바라시죠.”

성전을 바라보세요

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죽은 자를 위해 대리 침례를 처음 받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벤은 “아직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갔다 와서 그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곳인지를 간증으로 이야기해 주죠.”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아는 처음으로 성전에 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정원회 청남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긴장이 될 수도 있지만 성전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



오소서 주님

꾸밈없이 ♩ = 72-84

교회에서 제작한 *Savior of the World: His Birth and Resurrection*
[세상의 구주: 그분의 탄생과 부활]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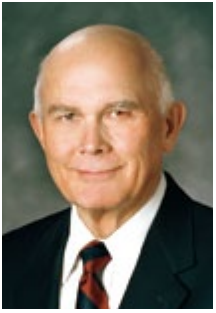
1. 오 소 서 주 님 구 유 에 당 신 얼 굴 비 리 니
 2. 오 소 서 주 님 상 하 고 무 를 꿩 은 자 에 게
 3. 오 소 서 주 님 구 속 주 동 편 의 아 침 의 빛

위 대 한 창 조 주 계 서 낮 은 곳 에 오 션 내 서
 사 랑 의 자 녀 되 오 리 여 니 평 안 물 닦 아 주 소 서

어 영 영 둠 광 광 을 중 중 홀 에 으 시 고 아 침 솟 아 오 르 네
 영 영 광 광 중 중 에 오 셔 서 우 리 다 스 리 소 서
 주 님 구 유 에 오 소 서 우 리 주 예 수!
 주 님 구 유 에 오 소 서 우 리 주 예 수!
 주 님 구 유 에 오 소 서 우 리 주 예 수!

Savior of the World: His Birth and Resurrection[세상의 구주: 그분의 탄생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휘 하에 작사, 작곡되었다.

© 2003 IRI.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모든 복사본에 본 문구를 포함해야 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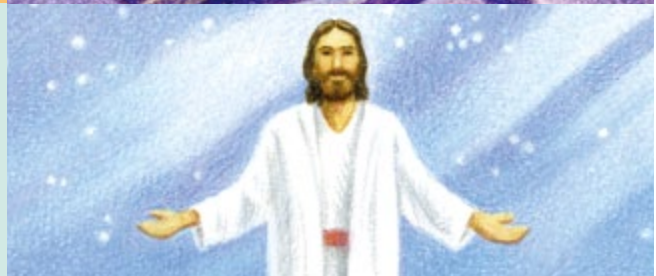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여러분도
이 사실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신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몰 문경을 번역할 당시, 조셉 스미스와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 관해 기도를 드리려고 숲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온 사자가 빛 구름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이 사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후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서로 침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지상에 와서 조셉과 올리버를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권은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68~72 참조)

우리는 신권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그의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 아픈 사람,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신권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식에는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의 은사, 가족을 영원히 함께 인봉해 주는 성스러운 성전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는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권으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래와 성구

- 어린이 노래책에서 신권에 관한 노래를 하나 고른다.
- 교리와 성약 84편 35절

인물: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케네스 라일리 © 1965 IR; 성임된 신화, 필리스 루치 © 1988 IR; BLESS THEM IN HIS NAME, 월터 레인 © IR; 오른쪽 삽화: 레베카 밀러

CTR 활동 신권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신권은 의식과 축복을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음 그림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넣으세요.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합니다. 의자에 앉아 성찬을 막 취하려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넣으세요.

아픈 사람에게 신권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넣으세요.

바로 여러분

값진 진주에서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8~73절을 펴 보세요. 이 구절을 활용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 성구를 읽고 배운 것을 다른 종이에 써 보세요.

1. “아론 신권[은] _____ 의 성역, _____ 의 복음[을] 위한 열쇠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2. _____ 가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3. 올리버 카우드리는 _____ 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4. 침례 요한은 _____, _____, _____ 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5.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_____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가족은 성전 의식을 통해 함께 인봉될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그려 넣으세요.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신권 의식입니다. 침례탕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넣으세요.

두 배로 온 축복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 사는 소피와 엘로디 에이를 만나보세요.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엘 살인 쌍둥이 자매, 소피와 엘로디는 마다가스카르에 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해안 부근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이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엘로디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선교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아셨대요. 아빠는 곧바로 개종하셨어요.” 엄마는 몇 달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딸을 하나 낳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소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딸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낳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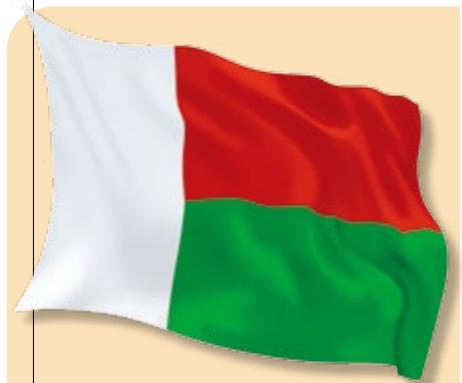
그 후로 축복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



소피와 엘로디의 가족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인봉되기 위해 3년간 저축하여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2,1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며 인도양도 건넜습니다.



두 소녀의 집 옆에는
어머니의 소유인 진료소가
있습니다. 두 소녀는 바닥을
쓸어서 진료소 청소를
거듭냅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기에서 흰색은 순결을,
빨간색은 독립을, 녹색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소피와 엘로디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고양이들을 껴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우원숭이와 카멜레온은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동물입니다.



이 쌍둥이는 두 명의
남동생과 조카, 부모님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죽 사진 촬영: 리처드 링 블러; 기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드 © FR: ISTOCKPHOTO.COM/GLOBALP; ISTOCKPHOTO.COM/LFOWSKI

저도 침례 받으면 안 되나요?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7)

“누 노 그리고 미리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다음 주 토요일에
침례를 받겠어요?” 실바 자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파울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열 살인 형과 누나가 자매
선교사님들에게서 침례 받으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네! 그럴게요!” 쌍둥이 남매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암은 싱글벙글했습니다. 누노는
로페즈 자매 선교사님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붉은색
안락의자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은 몇 주 동안
할머니 댁에서 파울로와 그의 형과
누나를 가르쳤습니다. 파울로는
포르투갈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나무 많고 산들바람 부는 상미겔 섬에
삽니다. 파울로는 할머니 댁 현관문
창에서 산들산들 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복음을 가르치러 오시는 로페즈
자매님과 실바 자매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은 오늘 특별한 것을
가르치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파울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누노와 미리암이
침례를 받게 되니까요! 파울로도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자매님, 저도 다음 주 토요일에 침례

받으면 안 되나요?” 파울로는 물론경
이야기책을 꼭 끌어안으면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실바 자매님은 방긋 웃으면서도
고개는 가로저으셨습니다. “미안해요,
파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덟 살이 되어야 해요.
파울로는 아직 여섯 살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매님.” 파울로가 지지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도 하고 가족과 함께
몰문경도 읽는걸요. 저는 할머니와
마리오 삼촌이랑 함께 매주 초등학교
가고요. 전 이 교회가 참되다는 걸
알아요! 저도 형, 누나와 함께 침례
받으면 안 될까요?”

“파울로가 정말로 계명대로 생활하고
복음도 열심히 배운 걸 알아요.” 로페즈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파울로는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다. 파울로는 벌떡 일어나
형이랑 누나와 함께 쓰는, 다락에 있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처럼 차려입어요

힐러리 엠 헨드릭스
실화에 근거

1. 오늘은 엘리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4년만 더 있으면
너도 침례를 받을
거란다.

또, 침례를 받고
4년이 더 지나면
집사가 되어
성찬을 전달하게
될 거야.



2. 엄마는 엘리가 잠옷을 벗고 교회에 입고 갈 옷으로 갈아입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

집사는 교회에 갈
때 슈퍼히어로
바지를 입나요?

아니, 멋진 바지를
입는단다.



4.

집사는
교회에 갈 때
슈퍼히어로
셔츠를
입나요?

아니, 흰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단다.



5.

흰색 셔츠와 멋진 바지를
입고 싶어요. 집사처럼
입을래요.

엄마는 엘리가 멋진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 교회에서 엘리는 팔을 포개고서 집사들이 성찬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 한 집사가 엘리에게 성찬을 가져오자 엘리는 빵을 먹고 나서 성찬기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8. 엄마는 엘리를 보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엘리는 도움을 주어서 흐뭇했고 정말
집사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엘리는 집사처럼 차려입고 싶어합니다. 엘리가 집사처럼 차려입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엘리와 함께 찾아볼까요?



색칠하기



우리는 신권을 통해 구원 의식을 받습니다.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84:35)

브라질 청소년들, 가족 역사를 성전 사업과 연결시키다

멜리사 메릴
교회 소식 및 행사

후 세 에이 모스카오는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에 오는 청소년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전에 인접한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인 모스카오 형제는 거리상 많은 청소년이 성전에 오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며, 대부분 단체 여행으로 와서 며칠씩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침례식 후 그 다음 침례식까지 비는 시간과 식사 때가 아닌 시간, 그리고 다른 성전 의식에 참석하는 부모님과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유 시간에 성전 경내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할 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초대

그는 청소년들을 가족 역사 센터로 초대하여 FamilySearch 색인 작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청소년이 수줍어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모스카오 형제가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이름을 빛 속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청소년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 참조)

성전과 가족 역사 센터가 같은 시설 내에 위치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두 부분이 한 위대한 노력의 결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 구역 내 청소년들이

성전에 와서 배우는 바라고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 회장인 조지 에이 오크스는 말했다.

그는 “가족 역사와 색인 작업에 참여하도록 강조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성전에 오는 주요 목적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색인 작업은 그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소개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 센터에 오면, 모스카오 형제와 가족 역사 센터 봉사 선교사들은 다음 원리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간략하게 교육한다.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시온 산의 구주가 되는 것이다. (오바다 1:21 참조)
-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참조)
- 그들은 어둠, 즉 오랫동안 잊혀진 필름 속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교회와 기록 보관소의 먼지 쌓인 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다. 색인 작업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빛 속으로 가져와 그들의 가족이 찾을 수 있는 자료 형태로 만들어준다.
-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 가장 영광스러운 것 …… 곧 죽은 자를 위한 침례”(교리와 성약 128:17)의 또 다른 측면에 참여하는 것이다.
- 돌아가신 사람들을 구속하여 가족들을 축복하는 위대한 사업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우리 모두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모르는 이름에 대해 색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돕는 일인 것이다.
- 일단 색인 작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 구역 내 청소년들을 성전 여행 동안에 침례 의식 사이사이에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 참여한다.

자신의 가족과 워드 및 지부 청소년들에게도 참여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 후 모스카오 형제와 선교사들은 가족 역사 센터 컴퓨터를 사용하여 십대들에게 색인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집에 돌아가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이해를 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색인 작업을 시작한다.”고 모스카오 형제는 말했다.

색인 작업에 대한 열의

숫자를 보면 그 열의를 알 수 있다. 2012년 첫 두 달 동안 방문자들이 색인 작업한 이름은 6,370개였다. 그 중 3,305개 이름은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색인 작업한 것이다. 사실, 캄피나스 가족 역사 센터는 색인 작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정규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두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성전을 떠난다고 해서 색인 작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모스카오 형제의 말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활동하는 170,000명 이상의 색인 작업자 군대”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 많은 청소년이 색인 작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

올해 초, 브라질 에스피리투산투 빌라베야에 사는 16세 소녀 이사벨라 에이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성전에 갔다. 그 성전 여행의 마지막 날은 할머니의 일주기였다. 이사벨라는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았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다른 성전 의식들을 행했다.

이사벨라는 “저는 이 여행 동안에 뭔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설명했다. “색인 작업을 배우고 싶어서 호세 모스카오 형제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으면서 영을 강하게 느꼈어요. 휘장 저편에서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봉사할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색인 작업은 사랑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인도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이 책 장로,
파멜라 켈러스트래스 자매
인도 벵갈로 선교부

20 12년 5월 27일,
인도에 세워진 첫 번째 스테이크인 인도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노보텔 컨벤션 센터에 모인 1,500명 이상의 회원들과 동행자들

사이에서는 들뜬 기분과 감사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감리하고 칠십인 회장단인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와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는 칠십인,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가 함께 참여했다. 각 지도자는 부인을 동반하여 대회에 참석했다.

존 거티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수레쉬 나타라잔이 제1보좌로, 라자라트남 부쉬가 제2보좌로 지지되었다. 전 지방부 회장인 프라사드 라오 구테이는 인도의 첫 축복사가 되었다.

인도 벵갈로 선교부 회장인 랜디 디 핑크는 인도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경이며,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새로 조직된 인도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단(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제1보좌 수레쉬 나타라잔, 회장 존 거티, 제2보좌 라자라트남 부쉬.



인도의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기에 앞서 거의 600명에 이르는 청년 독신 성인들이 대회를 위해 인도, 네팔, 스리랑카로부터 모여들었다.



사진 촬영: 제임스 멤링톤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가 이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피킨스 장로는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사랑을 인도 회원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기이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스테이크 조직은 영원한 복음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권 모형에 따라 수립됩니다.”

홀스트롬 장로는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이 부름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계시로 새로운 스테이크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칠십인 일원으로서 지명을 받고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그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의 방법에 관여했으며, 계시를 받기 위해 주님의 영에 의지했다. 홀스트롬 장로는 “주님의 뜻은 거티 회장님이 스테이크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남편 옥스 장로와 함께 참석한 크리스틴 옥스는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머니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엘마서 56:48 참조)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모임의 마지막 연사인 옥스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 나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옥스 장로는 주님께서 부름 받을 지도자들을 준비하시고

**옥스 장로와
기타 교회
지도자들은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방문하는 동안
인도, 네팔,
스리랑카에서
온 수백 명의
회원들과 만났다.**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영의 증거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또한 스테이크의 새로운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옥스 장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그들을 보호해준 장막에 비유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교회는 장막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막이 말뚝, 즉 스테이크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했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또한 우리가 충실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축복과 약속이 선언됩니다.

인도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인도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선지자가 영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옥스 장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조직된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이 하이데라바드는 시온의 스테이크이며, 여러분은 진일보하여 십일조와 선교사 측면에서 더 큰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기에 하이데라바드의 회원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옥스 장로는 축복사의 축복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를 설명하며, 축복문을 “개인 경진”이라고 언급했다.

“축복사의 축복에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는 여러분의 혈통이 선언되며, 그 혈통을 통해 위대한

모든 스테이크는 성전을 짓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회원들이 합당성과 헌신을 보이면, 그에 따라 성전이 건립됩니다.”

옥스 장로는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을 간구했다. “이 위대한 나라 인도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어진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을 기억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기억하여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

사도, 필리핀에 새로운 MTC를 헌납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2012년 5월 20일에 헌납한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은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이완, 타이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을 144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선교사들은 각자 모국어로 훈련을 받는다.

두 건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에는 강당, 통역실, 컴퓨터실, 세탁장, 시청각 장비가 내장된 강의실, 선교사 숙소, 교실, 사무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넬슨 장로는 이 새로운 시설을 헌납하는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전 세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충실한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필리핀이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환영의 문을 계속 열도록” 축복을 간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의로움 가운데 성장할 자유와 책임”으로 축복받도록 기도했다.

새로 건립된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은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이완, 타이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을 144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선교사들은 각자 모국어로 훈련을 받는다.



PHOTOGRAPH BY NOEL MAGLAQUE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138번째이자 브라질에서 여섯 번째인 브라질 마나우스 성전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2012년 6월 10일에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138번째이자 브라질에서 여섯 번째인 브라질 마나우스 성전을 헌납했다.

브라질에서 생활하는 백만 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은 깊이, 그리고 세차게 흐르는 아마존 강에 비유할 수 있다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말했다.

여러 주요 강과 열대 우림으로 고립된 도시인 마나우스의 교회 회원들은 거의 20년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 여행을 해왔다. 이것은 배와 버스로 왕복 15일이 걸리는 여행이었으며, 이후에는 버스로 8일 걸리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에 참석해왔다.

칠십인인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1990년에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부가 개설되었을 때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저는 마나우스 성전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분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 회원들은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코스타 장로는 말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성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모아 교회 회원들, 50주년이 된 독립 및 첫 스테이크 집합을 기념하다

2012년 6월 1일 금요일, 약 350명의 사모아 후기 성도들이 다른 사모아인들과 함께 아피아 거리를 따라 독립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며 행진했다. 이 나라는 50년 전인 1962년에 뉴질랜드로부터 독립했다.

여러 단체, 학교, 지역 교회, 국제 기구들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후기 성도 학생들은 악단과 함께 수만 명의 구경꾼들을 즐겁게 했다.

하지만 사모아 후기 성도들에게는 그 주말을 축하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50년 전에 아피아에서는 사모아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6월 3일 일요일에 칠십인이자 태평양 지역 회장단 일원인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와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는 그 나라 전역에 있는 후기 성도 집회소로 방송한 특별 모임에서 후기 성도와 내빈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는 해물러 장로는 앞을 내다보는 사모아 후기 성도들은 계속해서 가족과 마을과 국가에 봉사하고 그들을 강화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는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간증을 키워주는 리아호나

저는 1967년 이래로 열심히 리아호나를 읽고 공부해 왔으며, 리아호나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교훈을 얻고, 주님 영의 속삭임을 느끼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쌓게 해주는 이 잡지를 매달 기다립니다. 특히 “하늘 부모를 닮고자 애쓰고 공경하며”(리아호나, 2012년 2월호, 80쪽)라는 기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래픽 디자이너이기애 그 기사를 쓰신 분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파비오 파자르도, 콜롬비아

교사이자 친구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리아호나는 저를 가르치고, 힘을 주며, 제 삶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좋은 기사를 읽으면, 온종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또한 리아호나를 친구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것처럼 훌륭한 교사이자 친구가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아나스타샤 나프라스니코바, 우크라이나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출하신 내용은 명확한 표현과 분량 조절을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검약하는 삶: 미래를 대비하다**”, 12쪽: 이 기사에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영역 여섯 가지를 읽는다. 이런 영역에서 자립을 하면 어떤 긴급 상황이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느 영역을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그런 영역에서 자립을 키우도록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유한다.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 순결을**”, 42쪽: 가족과 함께 이 기사에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했다. 순결에 대한 간증을 강화할 수 있었던 원리와 경험들을 나눌지 고려한다. 이 기사의 권고를 적용할 방법들을 토론했다.

“**헌명해지고, 친구가 되십시오**”, 48쪽: 먼저, 헤일즈 장로가 제안한 좋은 친구

판별 방법을 읽어본다. 좋은 친구가 되는 중요성을 토론했지 고려한다. 각 가족 구성원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아미가에게**”, 60쪽 및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환영하며**”, 61쪽: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이 청년회 청년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이 어린이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가족으로서 함께 토론했지를 고려한다. 가족들에게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소책자를 읽고 앞으로 완수하고 싶은 활동을 몇 가지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

.....

하나의 가정의 밤, 두 개의 공과

어느 날 밤, 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우리가 하는 가정의 밤을 보러 오셨다. 나의 세 아이는 모두 가정의 밤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날 밤에는 일곱 살짜리 아들이 공과를 할 차례였다. 우리는 작은 전시물 하나를 준비하고, 창조에 관한 그림들을 올려 놓았으며, 아들이 가르칠 내용을 공부하고 복습했다. 아들은 준비가 되었고 신이 나 있었다.

공과 시간에 우리는 모두 아들이 설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 아이가 공과를 끝내자 세 살 된 사무엘은 자신도 공과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림들과 전시물을 집어서 다시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사무엘은 작은 목소리로, 이따금 서투른 발음으로 우리에게 가정의 밤 공과를 전했다. 그 아이는 비록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형의 공과를)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었다.

자기 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공과를 참 쉽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척 놀랐다. 부모님과 외조부모님도 놀라워하시며 행복해 하셨다. 우리 모두 이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다. ■

리즈베스 산케즈 파하르도, 멕시코

좋은 것은 계속 오기 마련이다

케이틀린 에이 러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다. 제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본 다음, 내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진정한 만족감이 방 안에 가득했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생각들이 뒤섞이며 웃음짓지 않을 수 없었다. 겨우 한 달 전에 알게 된 친구도 있었고, 내가 살아온 스물다섯 해 동안 평생 알고 지낸 친구도 있었다.

오랜 친구 하나와 몇 년 전을 떠올리며 몇몇 대학 동창들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졸업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삶들을 각자 살고 있다. 상실감에 잠시 한숨을 내쉬다가 방을 둘러보며 내 주위에서 깔깔대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다. '좋은 것은 계속 오기 마련이구나.'

단순한 생각이지만 사실 내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늘 변화를 힘들어하고 좋은 것은 놓으려 하지 않았기에 더욱 그랬다. 나는 아직도 눈 앞에 있는 것일지라도 과거가 된 것을 그리워하고, 의식적으로 온 힘을 다해 삶의 매순간을 온전하게 즐기려고 기를 쓴다.



현재가 눈깜짝할 사이에 과거가 된다고 한탄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고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

나는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오늘처럼 느긋하고 행복한 금요일 밤도 그런 좋은 순간들 중 하나이다. 대개 어떤 것들이 정말 좋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금세 지나가고 결국 시간이나 상황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그날 밤은 어떤 회한도 느끼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조용히 앉아,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끝이 나고, 미래에는 반드시 많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겠지만, 좋은 것은 계속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한 좋은 것들은 계속 올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지로 떠난다 할지라도, 새로 알게 된 멋진 사람들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경험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진한다는 것이 우정을 잊거나,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마음을 열어 더 큰 행복과 경험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몇 주 후, 우리 청년 성인 지부에서는 회장단이 해임되었다. 조그만 지부에 속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사랑하고 신뢰했던 회장단과 그들의 부인들을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 지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그 금요일에 떠올랐던 좋은 것은 계속 오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변화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었다.

변화는 주님의 방법이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성장하기를, 신나게 전진하기를 바라신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우리는 현재를 즐기면서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오게 될 경험들과 좋은 것들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낙관적인 태도로 전진해야 한다. ■